



# 양정산악 70년

70TH ANNIVERSARY OF YANG CHUNG ALPINE CLUB





# 양정산악 70년

70TH ANNIVERSARY OF YANG CHUNG ALPINE CLUB

발행일 — 2007년 11월 15일  
 펴낸이 — 조재완  
 펴낸곳 — 양정산악회  
 편 집 — 양정산악70년사 편찬위원회  
 제 작 — 이산미디어 (02)792-8848  
 디자인 — 김경호  
 인 쇄 — AP코리아

© 2007 Printed in Korea

양정산악 70년 편찬위원회  
 위원장 정기범  
 위 원 남선우, 홍성대, 김영오, 박정현, 양승목

養正山岳會

표지의 위 로고는 34회 최기봉 전화장의 휘호임.



1937년도 패넌트와 산악부 휘장



양정산악회기



# 양정산악부가

작사: 강대만

작곡: 노명

경쾌하게

1. 구름위에 우뚝 솟은 험한 봉우리  
산울림 쫓아서 맘을 삼키며  
높은 산 산줄기 타고 올라서  
이 육고 휘날리는 오렌지깃발우리  
는 자랑스런 억센 개척자  
용명을 떨치고 발자취를 남기며  
군계몽처 나가는 양정산악회

2. 어두움을 해치며 이슬 맞으며  
이 바위 저 바위 발판을 삼아  
묵묵히 힘주어 당기는 줄에  
서로 돕는 그 마음 살피어 간다

3. 배낭은 무겁고 목은 말라도  
보이는 상상봉 기어올라  
금자탑 인내로 쌓아 올리니  
등산가의 장쾌한 정복의 기쁨

## 登

山이라 하면 대개가有閑輩의심심부리나、或은有産者의돈쓰는한方便이라고밖에는더알어주지않는다. 그러나登山이란것은決코그러한쓸데없는것이아니요大自然을相對로肉身을鍛鍊하며浩然한氣概를일구는一種의高潔無雙한運動인同時에사람에게참되고힘진敎訓을주는크나큰스승이다. 登山은다른運動과달리서그相對가같은사람이아니요한걸음더나아가無限大의大自然이다. 이點이다른運動과判然하게틀리는登山의特徵일것이다.

보라! 果然登山은有閑輩의消日커리일까? 事實剛健한오늘날의獨逸國民性과그들의頑剛한體軀가累次나魔峯난카발바트에있어서의悲痛한犧牲者를낸結晶이라하면! 實로登山은有産者의돈쓰는方便일까? 아니다! 千萬年雪에덮여永遠히人類를嘲弄하려는魔嶽난카발바트를降服받으려는저네들의慘憺한最後가崩雪속에깊이묻혀지고야말았다. 그렇니저들의靈魂이들고히잠들소나? 저들의靈魂은꺼안었다. 이우리人類를부르고있으리라. 그리하여우리가그들의所願을達成하기까지느는눈을감지못하리라. 가없다! 저네들! 저들은할일이없고, 돈이많아서저지도悲鳴을내고, 애처로운꼴을지었는가? 말하여보소! 저들의답답한가슴을가라앉히고또감지못하는눈을감도록말하여보라! 뭐라하리요? 別道理없을것이다. 다만우리山岳部旗幟에모임이저네들을慰勞하는대가장빠른일일 것이다. 그러면校友諸賢이여전제는우리山岳部를爲하야크게는진땀을내고애타는저들을爲하야하루밤비山岳부에발을맞추라.



## 80여년의 궤적과 선구적 행적의 의미를 되새기며...

양심정기(養心正己)의 창학 이념과 불굴의 산악 기상으로 양정산악부가 창립된 지 70돌을 맞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3월 중순,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리산 적설기 중주등반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우리 양정산악의 깃발이 1,915미터의 천왕봉에 우뚝 솟았습니다. 그로부터 70년간 이어진 양정산악인의 발자취는 때로는 금강산에 때로는 인수봉에, 때로는 저 멀리 알프스와 코카서스에, 때로는 지구의 최고봉 8,848미터 정상 위에 새겨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산악부 전신인 '무례사네'의 활동을 합쳐 8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양정산악인의 발자취는 그대로가 우리나라 산악운동의 효시이며 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설기 지리산 등반 이후 1937년 4월 학교로부터 공식 승인 받은 양정산악부는 단순히 학생산악단체가 아니라 같은 해 9월에 창립된 백령회와 함께 우리나라 산악단체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산이 일제에 강점당하여 등산 활동마저도 일본인이 세운 조선산악회에 의해 유린되고 있을 때 민족주의자 김교신 선생과 선구적 등산가 황욱 선생의 지도 아래 순수 산악활동을 펼친 선배들의 궤적과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산악부 졸업생들의 힘을 결집시켜 도약할 수 있도록 20년간 이끌어주신 초대 최기덕 회장님의 신과 양정에 대한 애정은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10년 전 출간된 <양정산악60년사>에 각종 기록들을 담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출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단절되었던 모교 양정산악반의 부활과 양정창학 100주년을 기념한 에베레스트 등정, 양정산악 발전기금 조성 등은 양정산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이며 10년간 전 회원들의 크고 작은 활동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양정산악인들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양정산악 70년>은 제 1단원에 그간 새로 발굴된 과거의 사진들과 10년 간의 새로운 사진들을 모아 화보로 구성했습니다. 제 2단원에는 60년사 중에서 귀한 자료가 될만한 기록들을 간추리고 여기에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양정산악 활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0년전 <양정산악 60년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책이 쉽게 나올 수 없었듯이 앞으로 발간될 양정산악 80년사, 90년사, 100년사를 위해서 <양정산악 70년>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글을 써주신 편찬위원들과 또한 적지 않은 출간 비용을 모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07년 11월 15일

양정산악회 제 12대 회장 조 재 완  
양정산악70년 편찬위원장 정 기 범  
양 정 산 악 회 회원일동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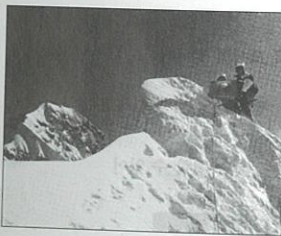
## 1 사진으로 보는 양정산악 70년

- 양정산악부가 15
- 발간사 16
- 역대 양정산악회장 12

- 1930년대 14
- 1940년대 22
- 1950년대 36
- 1960년대 44
- 1970년대 60
- 1980년대 70
- 1990년대 82
- 2000년대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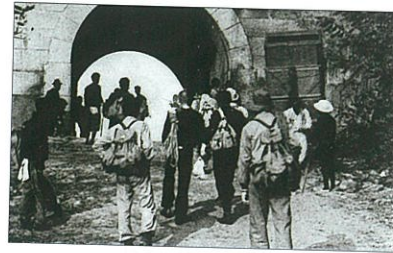


##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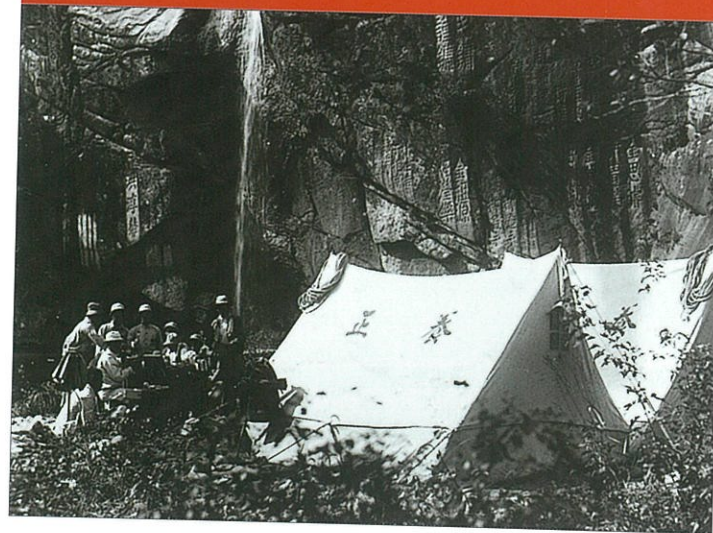
## 2 기록으로 보는 양정산악 70년

### 제1장 양정산악의 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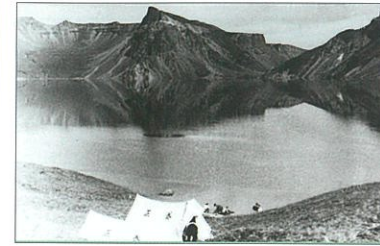


1. 양정의숙과 여명기 등산 122
2. 교지에 실린 등산관련 기행문 124
3. 김교신과 무례사네 126
4. 선구적 등산가 황욱 선생 129
5. 황욱과 한국의 근대 산악운동 132

### 1924-1936



### 제2장 양정산악부의 탄생과 일제하의 활동



1. 산악부의 기원 138
2. 양정산악부 배지와 등산장비 140
3. 1937년의 양정산악부 보고 142
4. 일간지에 보도된 최초의 지리산 종주(1937년) 144
5. 최기덕과 양정산악부 152
6. 1938년의 양정산악부 활동 156
7. 노정환의 주봉 추락사고(1939년) 159
8. 1940년의 양정산악부 활동 160

### 1937-1944

9. 함경북도 차일봉, 복수백산, 운수백산 등반(1942년) 161
10. 동계 속리산 등반(1942년) 165
11. 백두산 하계등반(1943년) 168
12. 금강산 집선봉 암벽등반(1943년) 174
13. 금강산 적설기 스키등반(1944년) 178
14. 함경북도 관모봉 등반(1944년) 180
15. 설악산 동계등반(1944년) 182



### 제3장 해방이후, 그리고 50년대 활동



1. 해방 이후의 산행활동(1945년~1950년) 187
2. 적설기 지리산 스키등반(1947년) 188
3. 6·25 사변과 안병주의 산악부 재건 191
4. 50년대의 양정산악부 활동 192
5. 제1회 고교생 해양훈련 울릉도, 독도 답사(1956년) 194
6. 제7회 전국 등행경기 우승기(1959년)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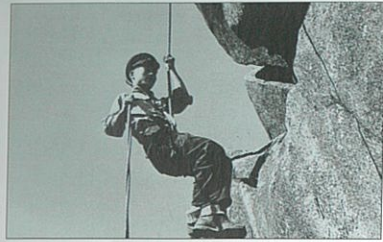
### 1945-1959





## 제4장

### 양정산악회의 발족과 60년대 활동



1. 60년대의 양정산악 활동 | 201
2. 양정산악회의 출범(1966년) | 204
3. 『양정 악우』지 발간(1968년) | 206
4. 한일 친선 설악산 등반(1968년) | 207
5. 김동기 악우 설악산 조난사고(1969년) | 208
6. 60년대의 주요행사 및 산행 | 210

## 제6장

### 에베레스트 동계원정과 80년대 활동



1. 80년대의 양정산악 활동 | 228
2. 양정 날기리 중앙봉 원정대 파견(1982년) | 231
3. 양정 에베레스트 동계원정대 파견(1984년) | 237
4. 분단이후 첫 백두산 등정(1988년) | 245

## 제7장

### 60년의 결실, 1990년대



1. 90년대의 양정산악 활동 | 259
2. 김명수회원 시사광마-초오유 원정(1991년) | 261
3. 산악회 내 소집단 활동 강화(1991년) | 261
4. 남선우, 초오유-시사광마 연속등정(1992년) | 263
5. 고인경회원 초모랑마 원정대 결성(1993년) | 264

## 제8장

### 양정 창학 100주년과 에베레스트 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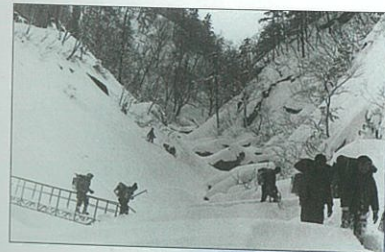
1. 2000년대의 양정산악 활동 | 282
2. 양정산악반의 부활 | 284
3. 양정 창학 10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로체 원정(2005년) | 286
4. 양정산악 발전기금 1억 모금 | 303
5. 2000년대의 주요행사 및 산행 | 304

## 60년대-70년대

## 제5장

### 70년대 활동과 인수봉 조난

1. 70년대의 양정산악 활동 | 213
2. 설악산 울산암 개척등반(1970년) | 215
3. 인수봉 A코스 조난사고(1974년) | 217
4. 일본 북알프스 한일합동 등반(1976년) | 219
5. 김명수회원 한국에베레스트원정대 참가(1977년) | 220
6. 70년대의 주요행사 및 산행 | 223



## 80년대

5. 재미 오홍조회원, 분단이후 첫 금강산 등반(1989년) | 250
6. 80년대 한국 히말라야 원정을 빛낸 양정산악인들 | 252
7. 1980년대의 주요행사 및 산행 | 254



## 90년대

6. 분회 원정대, 엘브루즈-우쉬바 북봉 등정(1994년) | 264
7. 설악산 토왕성 빙폭 등반(1994년) | 268
8. 김정호 악우의 귀국환영(1995년) | 270
9. 고 노정환 선배 추모비 제막(1996년) | 271
10. 양정산악 60년사 편찬 및 기념식(1997년) | 272
11. 청도 노산 경천주봉에 양정길 개척(1999년) | 275
12. 90년대의 주요행사 및 산행 | 278



## 2000-2007

## 부록

1. 교지에 실린 등산기행문(1924~1936년) | 316
2. 역대 양정산악부장 명단 | 340
3. 양정산악회 2007년 임원 명단 | 341
4. 양정산악회 회칙 | 342
5. 양정산악회 발전기금 관리회칙 | 344
6. 양정산악회원 명단 및 주소록 | 346
7. 도움주신 분들 | 360







초 대  
최 기 덕 (22회)  
1966년~1985년



제2,3대  
최 병 덕 (34회)  
1986년~1989년



제4대  
윤 효 기 (41회)  
1990년~1991년



제5대  
홍 용 표 (44회)  
1992년~1993년



제6대  
최 기 봉 (34회)  
1994년~1996년



제7대  
임 병 문 (40회)  
1996년~1998년



제8대  
고 인 경 (45회)  
1999년~2000년



제9대  
김 명 수 (46회)  
2000년~2001년



제10대  
김 정 형 (47회)  
2002년~2003년



제11대  
정 기 범 (49회)  
2004년~2005년



제12대  
조 재 완 (47회)  
2005년~ 현재

사진으로 보는 양정산악 70년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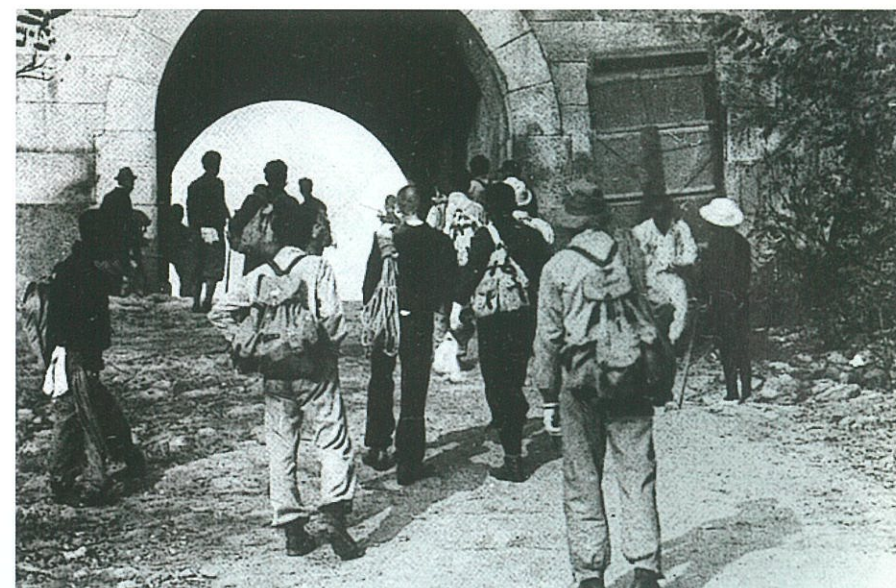




# 30년대



양의 양정산악부원들. 학교로부터 공식승인 받기 훨씬 전부터 이들은 북한산과 도봉산에서 암벽등반을 즐겼다.



1935년의 북한산 지하문과 자일을 멘 양정산악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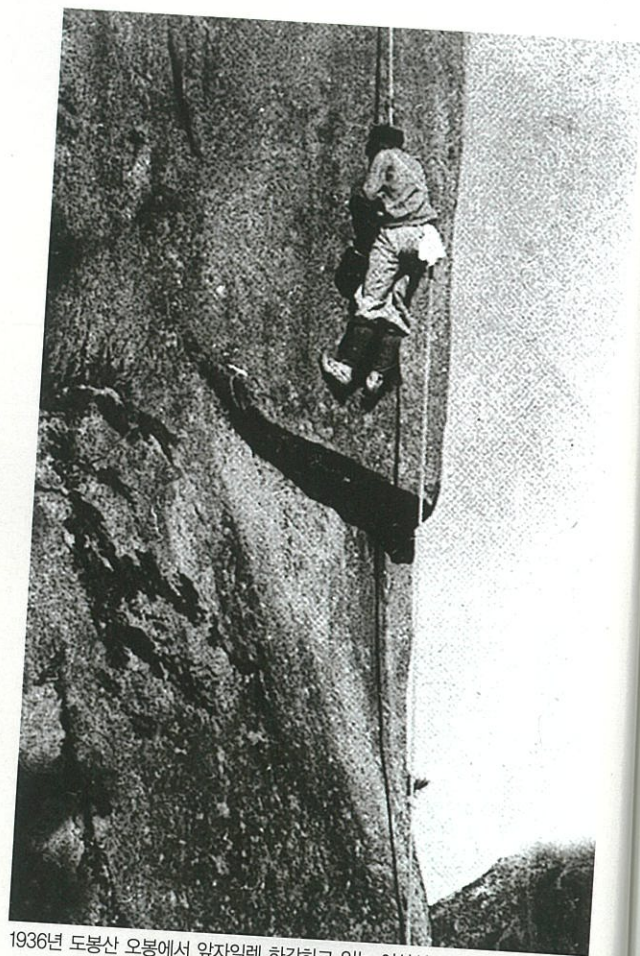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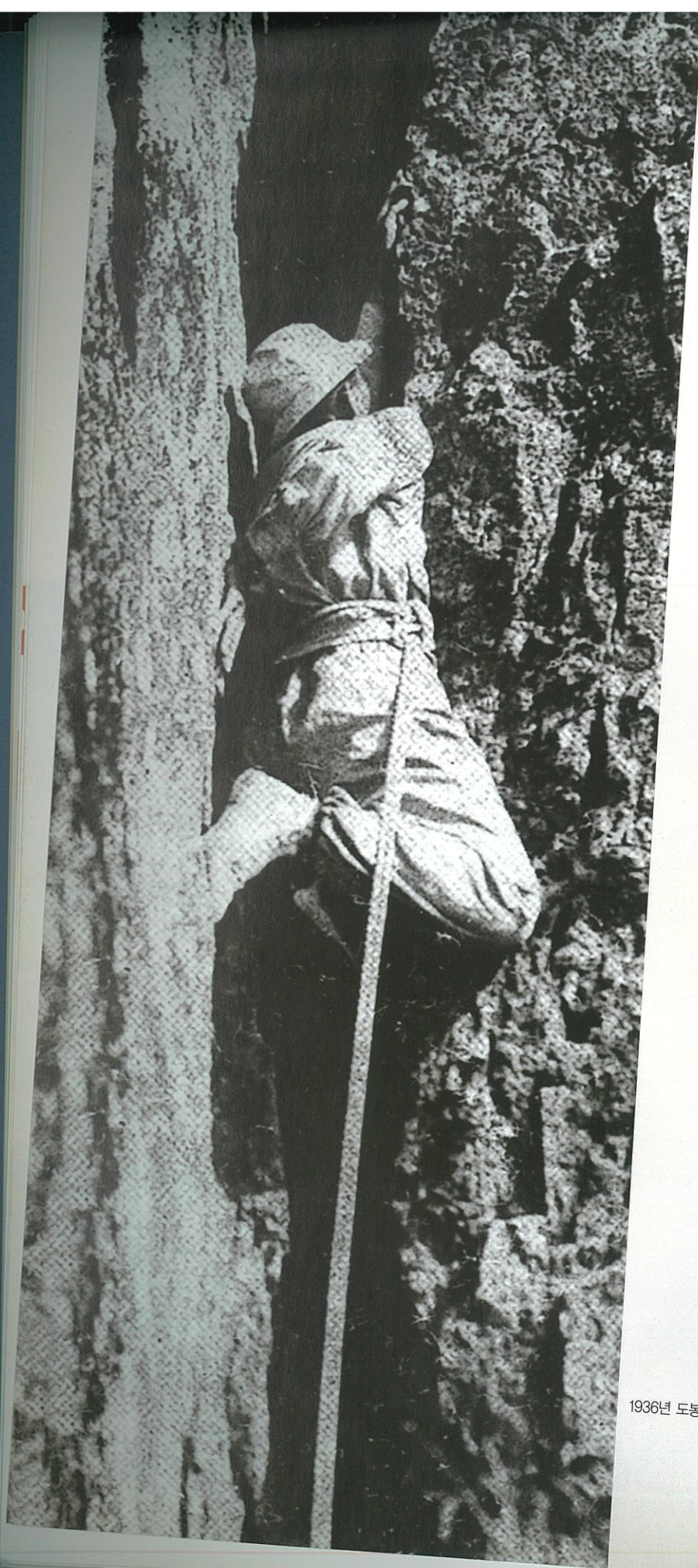


1936년 4월 19일 산악부원들과 북한산을 오른 황옥선생(가운데 앉은 이). 그 뒷줄 왼쪽 두번째부터 안필수, 김성근, 최기덕, 안병현, 이석중, 임동규.



1936년 당시 양정산악부가 사용 하던 장비.





1936년 도봉산 오봉에서 앞자일렌 하강하고 있는 이상선 부장.

1936년 도봉산 만장봉의 침니를 오르고 있는 최기덕.



1937년 3월 국내최초로 지리산을 첫 종주한 양정산악부원들.  
뒷줄 맨 오른쪽이 리더인 최기덕이다.



1937년 3월 지리산 등반 직전 남원 광한루를 들른 대원들.  
좌로부터 안필수, 이상선, 전일, 김상국, 최기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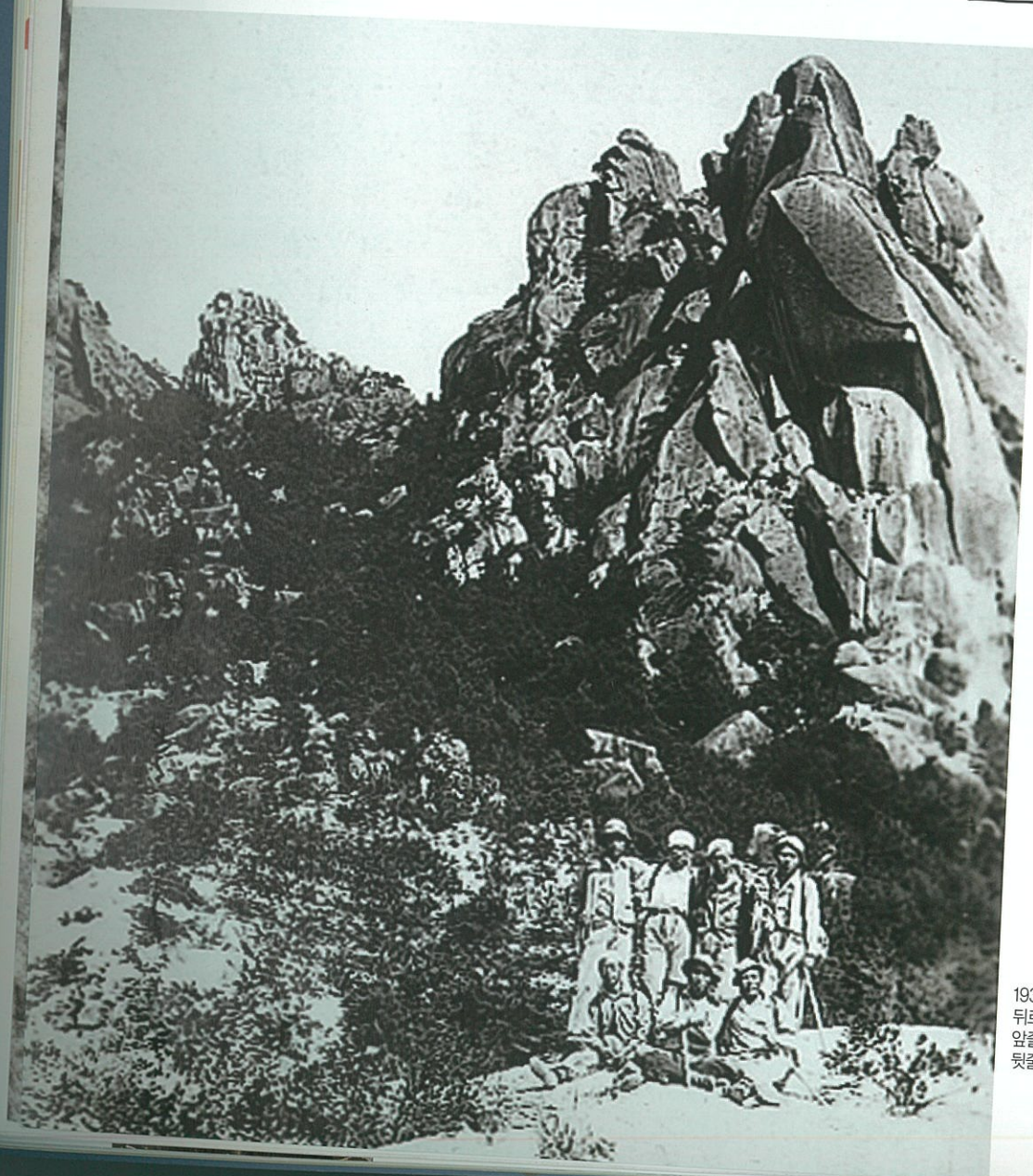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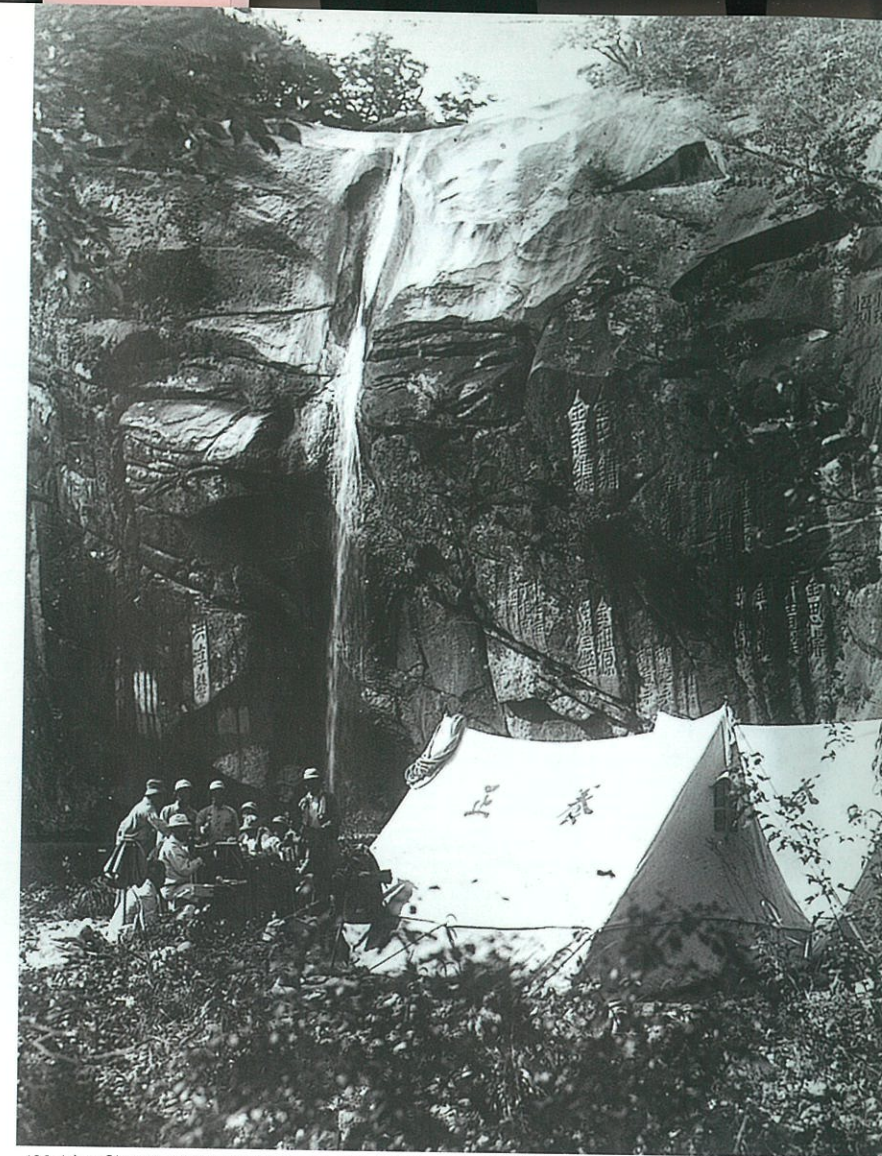
1937년 3월 22일 지리산 천왕봉에 오른 양정산악부 대원들 당시 중등 학생으로 오른 이 쾌거를 중앙 일간지에서 대서특필로 보도했다.



1937년 2월 3일 졸업생과 함께 학교정문에서 기념촬영한 산악부원들. 이들은 34년부터 활동한 멤버들이다.



1937년 10월 도봉산에 오른 산악부원들. 뒤로 선인봉과 만장봉이 웅장하게 솟아 있다. 앞줄 좌로부터 한상욱, 안필수, 김상국, 뒷줄 우로부터 최기덕, 노정환, 김성근.



1937년 10월 31일 박연폭포 밑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고 있는 양정산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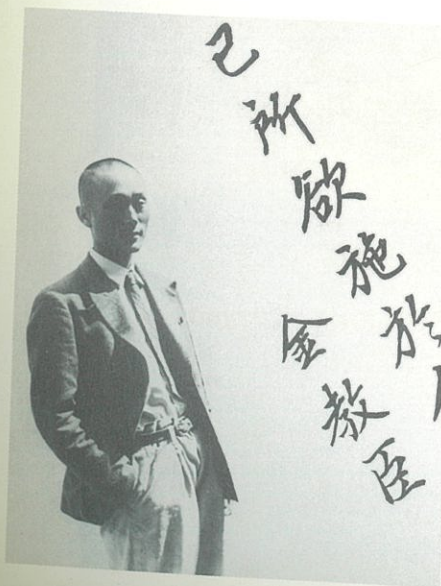
1939년 인수봉을 등반하고 백운산장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산악부원들.



### 3. 김교신과 무례사네

김교신(金敎臣) 선생은 1901년 4월 18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김염희(金念熙)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2세 때 부인 한매(韓梅)씨와 결혼하여 2남 3녀를 두었고 1919년 함흥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정칙(正則)영어학교와 동경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다. 학생시절 함석헌 등과 우찌무라 간조(內村鑑三)문화에서 사사(師事), 조선의 무교회주의를 창도하였고 성서조선을 창간하여 멀리 만주에서부터 제주도 와 소록도 나환자에까지 널리 애독되었다. 1942년에는 정신적인 독립운동이라 간주되어 투옥되기도 하는 등 의욕적인 종교활동을 하였다. 1928년 4월 1일부터 1940년 3월 22일까지 만 12년 양정고보에서 지리와 박물학(식물, 동물, 광물)을 가르치며 지리학을 통해서 조선의 역사와 조선의 국토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깨닫게 하고 식민통치하에서 암암리에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선생의 국토 사랑은 그의 일기가 시작되는 1930년부터 나타난다. 서울 근교산의 섭렵은 물론 1930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묘향산 등반길에는 천막을 치고 취사도 하고 최고봉인 비로봉을 일행들의 극심한 피로로 오르지 못함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산과 유적지 및 고적의 탐승은 계속되었다.



126 YANG CHUNG

선생이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기독교에 심취한 그가 산상수훈(山上垂訓)을 하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지리를 가르치려면 당연히 여러 곳을 둘러 봐야 했는지도 모르며 또한 박물학을 가르치려면 채집은 당

연한 일이므로 산과 들을 자주 접해야 했다. 아무튼 선생의 나라 사랑과 국토 사랑은 대단한 것이었다.

일기에 의하면 1933년 10월부터는 원족회라는 이름으로 다녔고 그러다가 1934년 선생은 교우 이정섭(李鼎燮)씨의 권유에 의해 무례사네(물에산에)회에 나가기 시작한다.

“이선생이 초청하는 대로 무례사네회에 따라가 보았다. 일행 남녀 9인이 창의원(彰義門)을 나가 사상(史上)에 관계 깊은 독박굴 좁은길 골목을 넘어 진관사(津寬寺)에서 잠시 쉬고 다시 비봉(碑峰)을 넘어 승가사(僧伽寺)의 약수를 마시고 월광(月光)을 받으면서 창 의문을 돌아 걷는 동안에 서로 이야기하는 일 외에 특히 하는 일은 없으나 자못 유익함이 많았다. 이와 같은 건실한 회합이 있음을 알기가 늦었고 참렬하기가 늦었던 것을 후회한다.”(8월 19일 일기)

중학교 21회 손기정, 김영상 선생의 육성 증언에 의하면 “금요일 오후 학교 게시판에 ‘무례사네 ○월 ○일, 목적지 : ○○○, 집합장소 : ○○’라고 쓰여서 학생들을 데리고 다녔고 ‘물에 산에’를 ‘무례사네’라고 함은 고유명사화시키기 위함이고 처음에는 그들을 따라다니다 나중에는 선생이 무례사네회를 직접 이끄셨다”고 증언하였다. 선생은 그 후 거의 매주 학생들을 이끌고 산과 유적지를 찾는다. 도봉산 천축사, 망월사, 압구정, 봉은사, 양재천, 낙성대 동구릉, 관악산, 수원성…… 선생은 금수강산에 점점 매료되어 간다.

1934년 10월 7일에는 북한산 산행을 하며 인수봉의 엄숙함을 노래하며 35km를 걷는다. 10월 14일 광릉 쪽으로 30km, 10월 21일 관악산행 이후 왕십리 넘어 용마산, 아차산으로. 인원이 점점 늘어나며 급기야 11월 11일에는 양정 학교생도 140명을 이끌고 북한산에 오른다

“서대문으로 올라 아문(亞門)으로부터 도선사를 지나 우이동으로 하산, 이로써 금추삼회(今秋三回). 벌써 노적봉에는 빙하가 달렸다. 오르면 오를수록 백운대의 속삭임이 매번 다르고 인수봉의 설교가 때에 따라 곡조를 변화한다. 사십만 경성(京城) 인구 중 이 영산에 귀를 기울이는 이가 많지

못함과 교육 받는 남녀 중에도 북악산과 북한산을 분별치 못하며 삼각산의 세 봉을 지점(指點)치 못하는 영웅들이 불소(不少)함은 또한 우리의 무용(無用)한 흥분의 조건이 되는도다.”(11월 11일 일기)

아무렇게나 다닌는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1934년 교지에 2학년 갑(甲)조 박희숙 학생의 글을 보면 “(전략) 등산경험이 없고 나로서는 마왕과 같이 우뚝 솟은 북한산에는 도저히 오를 자신은 없고 일종의 공포심에 떨고 있었다. 그 전날 황선생으로부터 등산 요령을 배우고 비로소 다소 안심 이 된다. 11월 11일 하늘은 한 점의 구름도 없이 맑게 개였으며 조선의 밝은 아침, 허리에는 도시락을 차고 영천에 집합하였다.(중략) 황선생은 여전히 가방을 메고 머리에는 털로 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피로한 기색도 없다. 그 웅장한 모습은 마치 산의 용자(勇者)와 같다. 뒤지지 않으려고 뒤를 따른다. 땀은 펍 쏟아진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구슬 같은 맑은 물이 찰찰 흐르며 물 속의 자갈까지도 밝게 보일 정도다. 작은 폭포가 흐르는 바위 위에선 김선생님이 아, 아름답다!고 절찬하고 계시다. 누구나 감탄 안하는 자 없다.(후략)”

앞의 선생의 일기와 일치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당시 일본 입교(立敎)대학 산악부 출신으로 정통 산악을 추구하며 ‘록 클라이밍’을 즐기던 황욱 선생과 같이 학생들의 산악활동을 지도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양정 산악부의 뿌리인 것이다.

선생은 가끔 하는 산행도 부족하여 마포 공덕리 집을 아예 정릉 산 밑으로 옮긴다.

“1936년 3월 21일(토) 운후청(雲後晴) 휴일임을 이용하여 전가족으로 시외 북한산록 정릉리에 소요하다 여러가지 점으로 주택 건축을 주저하였으나 근일 해빙의 맑은 물 흐르는 청계(淸溪)와 한적한 주위 산림의 매력에 끌려 이사를 결정하다. 만일 여기까지도 발전되어 환경이 요란하게 될 때는 북한산성 안으로 재이주할 각오로. 현금(現金)은 북한산에서 내려오며 두번째 집이다.”

그 후 한 달간 집을 짓는 동안 수시로 가서 주위에 나무를 심는데 모두 1,000주가 넘는다. 5월 7일 정릉 집으로 이사 후 북한산에 대한 찬사가 일기 곳곳에 있다. 몇 대목만 옮겨보면,

“울타리 없는 집이라 북한산성이 북편을 막고 남한산성에 대문을 달았다(후략).”(일기/6월 6일) “(전략)백두산 도중의 유군(유달영) 단신에 동해암의 아름다움과 높고 푸른 산들은 실로 웅장하고 수려합니다. 고무산서 무산 사이 연도(沿道)에는 지금에야 들꽃이 만발하여 바야흐로 아름답습니다. 벌써부터 고산 나비들이 날고 있습니다. 두만(豆滿)의 급류도 장쾌합니다.(茂山에서)”라고 하였으니 부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 평남 승호리에서 삼십육동천의 탐승 오라는 유인도 있으나 욕심(慾)에 한이 없다. 묘사이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앞 시내에는 물소리 그치지 않고 북한연봉은 고산적 양풍(涼風)을 아끼지 않고 보내 주니 금강산이라면 마사연(摩訶衍)에 숙박한 것 같기도 하고 묘향산이라면 보현사 앞에 천막(天幕) 친 때 같기도 하고 하물며 포플라 끝에 밝은 달 걸린 밤에야 무엇을 더 바라랴.”(8월 5일 일기)

류달영은 선생의 수제자이며 성서조선 사건으로 같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사돈까지 된 사이로 1936년 백두산 등반 때 편지이다.

“귀산(歸山)하니 설경의 북한산하에 우리집이 첫째집으로 불만 반짝이는 것도 일경(一景)(12월 4일 일기).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꼭 ‘歸山’이라 하며 집에서 지내는 것을 ‘북한산록’에서 지낸다고 표현하고 있다.

“달빛이 막히지 않도록 창을 열어 놓은 대로 취침”, “금야(今夜)도 명월과 포플라와 북한산을 번갈아 바라보며 자정이 넘도록 잠들기를 거부한다”, “저녁 후에 삼각산에 등산하고 오는 양정생도 4인의 내방이 기뻐다”, “북한산록 일대의 설경이 아름답다. 해돋이의 양광(陽光)을 받은 북한산은 자수정갈게도 보이더니 이윽고 자색은 물러가고 전산전동(金山全洞)이 백옥전(白玉殿)이요 수정궁이다”, “담임반생도들과 함께 북한산록 일대를 순회하다 우리집 후원을





1936년 4월 19일 산악부원들과 북한산을 오른 황욱선생(가운데 앉은 이) 그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안필수, 김성근, 최기덕, 안병현, 이석중, 임동규이다.

로이 대원당(大元堂)의 편액이 있고 북에는 백두산 대택 중 덕사(白頭山大澤宗德寺)의 편액이 있으며 내당의 남면에는 옥황상제천불위(玉皇上帝天佛位)의 편액이 있어 내당으로부터 8.16.32칸으로 2배씩 체증(遞增)한 삼중팔각전(三重大角殿)으로 지었으나 폐사되어 인적 없음과 이 절의 주산인 비류봉의 북동안에 고산성 식물인 노란꽃이 피는 철쭉과 시누버들 등이 있음을 본대에 보고하였다. 대원들은 그 날은 날씨가 좋아 천막을 치지 않고 한 조각씩 덮고 노숙하였다 한다.

선생께서는 록 클라이밍을 즐겼던 듯하나 아쉽게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다. 아니 아직 발견치 못했다. 교지 11호(1933년)에 실린 박희숙 학생 글에 의하면 “(전략) 북한산에는 도저히 올라갈 자신이 없고 일종의 공포심에 떨고 있었다. 그 전 날 황 선생님으로부터 등산 요령을 배워서 처음으로 다소 안도의 가슴을 쓸어 내렸다. (중략) 황 선생께서는 여전히 선두에 서서서 교도하여 나가신다. 어깨엔

희고 긴 로프와 두세 개의 가방을 메고 머리엔 털실로 짠 모자를 깊숙이 쓰시고는 피곤한 기색도 없으시다.(후략)” 이것만이 학생의 유일한 기록이다. 선생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교지 14호(1937년)에 실린 허중련 학생의 글을 보면, “(전략) 다른 그룹은 위태로운 바위에 로프를 걸고 하강 연습에 열중이다. 아래를 보니 천길 낭떠러지다. 한 발짝만 실수하면 한 조각의 살, 한 토막의 뼈도 찾을 수 없겠다.(후략)” 비봉 근처의 토끼바위(※양정 산악반에서 명명하였다 함)에서의 하강 연습 장면이 나온다. 허나 여기에서도 선생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교지 15호(1938년)에서부터는 인수봉, 만경대, 만장봉, 우이암, 주봉, 오봉 등에서의 암벽등반 기록이 쏟아져 나온다. 선생의 가르침 덕분이었을 것이다.

영국의 아처가 인수봉에 오르기 전 사전답사로 백운대에 올랐을 때 보았다는 인수봉 정상에 있던 한 사람이 혹 선생은 아니었을까? 이야마 다쓰오보다 먼저 인수봉을 초등한 사람이 선생은 아니었을까? 확실한 기록이 없어 그저 짐작만 할 뿐이니 아쉽기 그지없다.

선생은 당시 자신의 활동 기록보다는 등산과 스키에 대한 교육적인 글들을 여러 잡지에 기고하였다. 그 중 월간 중앙 1935년 7월호에 <록크·크라이밍과 그 지식>이란 글은 암벽등반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글일 것이다. 선생은 이 글에서 인간이 산과 만나게 되는 종교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서술하고 종교가,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들과 산의 접촉을 학술적으로 논한다. 그 해박한 지식과 안목을 보면 그의 독서량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등산광 황욱이도 혹 삼일포보다 경치가 더 좋은 사오일포(四五日浦)쯤 발견하야 어찌면 후세에 신선(仙)으로 승급이 될런지 알 수 없지만두 시대를 잘 얻어 만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면 유감이다.”

스스로를 등산광이라 자처한다. 1760년 소-술이라는 박물학자가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머리에 상을 걸어놓은 것이 등산의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고 현상(懸賞)후 36년 즉 1787년 발마(J. Balmat)와 파카르(M. Paccard)에 의해 몽블랑이 등정될 때 그들의 고산 증세와 설매에 대하여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영국의 워퍼가 마티호른을 정복한 1865년 경을 현대적 등산 즉 ‘스포츠’로서의 등산이 이미 시작된 해라고 갈파한다.

“스포츠로서의 등산이란 등산을 위한 등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등고열(登高熱) 정복욕에 타오르는 심신활연(心身豁然)의 일대 환희경이다. 관상산로(觀想山路)의 만보(萬步)로 만족할 수가 없다. 현대인이란 모험을 가배차(伽非茶, 커피를 이름) 한 잔 마시듯 한다. 그런데 그 가배차란 없지 못할 현대적 사치품이 아닌가. 심신의 권태를 자극시키며 심신의 긴장에 무한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난코스, 신코스를 택하는 것이 현대적 등산의 골자다. 그러니 자연 고봉준령 기암석벽을 찾아 다니게 될 것 아닌가. 여러 가지 현대적 도구가 필요할 수밖에.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의 등산이란 ‘등암(登岩)’과 ‘스키등산’에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북한산 인수봉을 경성의 운동장에 옮겨 놓아도 좋다는 주장은 아니지만두 미(美)니 수(秀)니 장(壯)이니 하는 산악의 경(景)을 떠나서 등암(登岩) 그 자체가 충분히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조희장(종이장)같이 피우기도 하고 밤송이처럼 오구리기도 하며 석벽에 아물거릴 때에 산악도 자아도 모두 초월해 버린다. 등암자(登岩者)가 암벽을 쳐다 볼 때에 일종 창작적 충동을 느낀다. 마치 화가가 화포를 대할 때와도 같다. 등암자는 적어도 ‘판서’의 소질이 있다고도 하지만 사실 암면(岩面)에 일종의 울동을 그린다. 천신만고를 긴장에 잃고 운무를

디디며 절정에 올라설 때에 그야말로 웅장한 자연에 콕 엉켜 버린다.”

위에서 보듯 선생은 등산에 스포츠 개념과 난 코스, 신 코스를 지향하는 Difficult variation route 개념을 도입하고 현대적 등산 도구의 필요성과 등산을 예술로 승화시킨다. “그러면 등암(登岩)이란 어떤 것인가? 생명이 깨강정 보스라지듯 할 위험을 가졌다. 침착성과 기술의 필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50~60년 간 연구탁마해 쌓아 놓은 기술이니 만큼 결코 단순한 바가 아니다. 실수해도 생명이 달아나지 않을 만큼 위험성이 적은 암벽을 택하여 많은 연습을 쌓아 놓으라. 동작이 민활하고 발목이 녹신녹신해져야 한다. 그러면 기술에 필요한 도구를 갖춰 보자.”

배낭과 천막으로 시작하여 등산화, 암벽화를 기술하고 피켈을 빙장(氷杖)으로 표기하고 자일(Berg seil), 예비승(豫備繩, 안전벨트), 희생승(犧牲繩, Sling), 철추(鐵追, Hammer), 복장을 논하며 훈련에 적당한 곳이 인수봉, 노적봉, 만장봉, 백운대가 좋으며 설악과 금강이 제1후보지라고 했다. 그리고 보행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등암술(登岩術)에 이르러 공극등반(空隙登攀, gully climbing)과 역완등반(力腕, grip climbing) 또 균형등반(balance climbing), 보신법(保身法, 확보법)에서 그 여러가지 방법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켄(Haken, 벽구벽鉤), 예비승(안전벨트) 사용법을 강하법에서 복각식(復脚式, 목자), 단각식(單脚式, 등자) 방법과 슬링(Sling, 희생승 4~5척의 밧줄로 환형環形을 만든 것) 사용법을 설명한다. 엄청난 안목과 지식이다.

한편으로 선생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전을 천 여 점 수집하여 잡지사 기자의 방문 취재를 받고 해박한 지식으로 기사를 감탄케 한다. 훗날 평양 박물관장을 지낸 것이 우연은 아닌성 싶다. 또 학생들에게 교지에 글로써 생활 태도를 일갈(一喝)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논하고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따로 지도해 끌어올려 주었다. 교탁에 발을 올려 놓고 강의를 하여 학생들을 놀라게도 하



국하여 중앙고보에서 영어교사로 교편생활을 하였다.

1927년에는 양정고보로 자리를 옮겨 1938년까지 약 11년간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후일 한국체육계와 등산계에 동량이 될 많은 인재들을 길러 낸다.

1930년대는 탐사등산시대로 대표되고 있으며, 그 열기가 한반도 전역에 확산되고 있던 때였다. 당시 언론사에서는 백두, 묘향, 금강, 설악산 등의 명산탐사등산을 적극 지원하여 등산운동의 대중보급과 저변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시기는 또 서구적인 알피니즘이 옮겨져 토착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육당 최남선, 민세 안재홍, 노산 이은상, 우보 민태원 등이 탐사등산 시대를 주도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일제에 강점된 조국의 산에 올라 국토애, 조국애, 한민족의 역사 등을 계도하며 피압박 민족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백령회의 핵심멤버였던 산악계 원로 고 김정태씨는 그의 저서 등산 50년에서 이 시기를 기록적인 탐사등반시대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업적이 근대등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하였다.

황옥은 스포츠적인 등산을 추구하는 한편 이들과 동참하여 탐사등반대열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그는 1930년 7~8월에 안재홍, 김상용, 수주 변영로, 경성고보의 박희길 등과 함께 주을온천~차유령~무두봉~분수령~천지~허항령~삼지연~해산진~줄본고원~후지령~북청으로 이어지는 대



1936년 지리산 등반 계획을 지도하고 있는 황옥 선생. 바로 왼쪽의 학생이 산악부 초대 리더 최기덕이다.

장정에 참여한다. 건각인 그는 일행이 백두산 천지에 이르러 지쳐 있을 때 김상용과 돌이서, 지금은 중국영토가 된 송화강 원류와 달문폭 일대를 돌다가 유항온천을 발견하고 수온을 측정하는 등 미지의 험로 40여리를 단숨에 왕복한다. 이때 남겨진 기록이 기행문학의 압권이라 할 수 있는 안재홍의 백두산 등척기로 당시 조선일보에 34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다음 글은 백두산 등척기 중에서 황옥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점심밥을 먹은 일행은 달문폭에 송화강원을 탐사하러 갈터인데 왕반(往返) 약 40리인 미지의 험로라 자신있는 자만이 참가하라는 권유이다. 해산진 가는 강행군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탐험을 단념하고 차라리 천지의 호반 반일(半日)의 자적(自適)을 골랐다. 등반 7인 중 가장 건각인 월파와 황옥 양씨를 제하고 5인은 모두 떨어졌다’.

무례사네는 그 설립동기, 구성원 단체의 성격 등에 대하여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양정교지에 실린 김교신의 1934년 8월 19일자와 11월 25일자 일기문과 산악부 리더 최기덕이 쓴 지리산등반보고문, 양정체육사 산악부편, 유달영이 펴낸 김교신의 조선지리소고 서문 등에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일례로 양정교지 1933년호(통권 11호)에 실린 박희숙 학생의 물에 산에 동참기 가운데는 북한산을 등반하던 중 황선생에게서 등산요령을 지도받은 후 공포증을 없애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식이다.

무례사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등산단체의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 다음 기록은 양정체육사 산악부편에 소개된 내용이다.

‘1933년 4월경 양정고등보통학교에는 교장 안종원 외 김교신 황옥 선생이 봉직하고 계셨는데 그중 김교신 선생은 산악애호 학생들을 중심으로 무례사네 라는 회를 만들어 매주 일요일이면 등산을 시작했다. 특히 황옥선생은 국내 산악을 순례하고 일요일이면 가끔 암벽등반도 하였다. 1937년 4월에는 학교로부터 산악부로 공식 인정을 받았으며, 지도는 황옥 선생이 담당하기로 되었다.’

1937년 양정산악부는 국내최초로 지리산등반을 끝내고, 당시 리더 최기덕(22회 졸업)이 그 등반기를 조선일보에 5회에 걸쳐 연재했다. 등반기중 무례사네가 언급된 부분을 소개한다.

‘우리학교에 산악부라는 명칭이 있는 지는 이미 오래된 듯하나, 확실한 설립은 금년에 와서였다. 우리 산악부에 가장 유서 깊은 무례사네는 김교신 선생께서 소개하신 것이며, 이 무례사네로 인해 많은 지도와 자극을 받게 되어 전국 전인미답의 고산준령들을 여지없이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무례사네회의 실체를 연구하고 이를 규명하는 일은 올바른 한국 근대등산사를 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민족성향이 강했던 이 모임에서 학생들은 황옥선생으로부터는 스포츠적인 의미의 등산관을, 김교신선생에게서는 독립정신과 민족애, 조선지리와 역사 등을 배운다.

황옥은 등산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미술사, 회화감상, 고고학 등에도 남다른 안목과 식견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림 솜씨도 뛰어났는데, 그의 이러한 재능이 인연이 되어 광복후에 그는 고향 평양의 평양박물관장을 지낸다.

그는 등산, 스키부문의 글을 여러 잡지에 기고했다. 그의 글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월간 중앙 1935년 7월호(통권 21호)에 기고한 ‘록 클라이밍과 그 지식’ 이다. 이는 1787년 작 발마의 몽블랑 등정으로 부터 시작되는 서구의 등산사와 암벽등반기술, 장비, 국내 산에서의 암벽 등반 대상지 등을 소개한 매우 희귀한 기록이다.

그는 이 글에서 1865년 뤼피의 마티호른 등정으로 현대적 등산 즉 스포츠로서의 등산은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등산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말로 당시로서는 첨단적인 그의 등산관을 피력한다.

‘스포츠로서의 등산이란 등산을 위한 등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등고열(登高熱), 정복욕에 타오르는 심신활연(心身豁然)의 일대 환희경(歡喜境)이다. 관상산로(觀賞山路)의 만보(漫步)로 만족할 수가 없다. 현대인이란 모험을 커피차

한잔 마시듯이 한다. 그런데 커피란 없지 못할 현대적 사치품이 아닌가. 심신의 권태를 자극시키며 심신의 긴장에 무한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난(難)코스, 신(新)코스를 택하는 것이 현대적 등산의 골자이다. 그러니 자연 고봉준령 기암석벽(奇岩石壁)을 찾아다니게 될 것 아닌가. 여러가지 현대적 도구가 필요할 수밖에.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의 등산이란 스키 등산에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북한산 인수봉을 경성운동장(지금의 동대문 운동장)에 옮겨 놓아도 좋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미(美)니 수(秀)니 장(壯)이니 하는 산악의 경(景)을 떠나서 등암(登岩) 그 자체가 충분히 그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다. 암등자(岩登者)가 암벽을 쳐다볼 때에 일종 창작적 충동을 느낀다. 마치 화가가 화포를 대할 때와도 같다’.

그는 이처럼 현대적 등산은 난코스, 신코스를 지향하는 메리즘(신 등정주의)이 그 방향이라고 설명한다.

이글에서는 또 등암술(登岩術), 등암에 필요한 도구, 보신법(保身法), 강하법(降下法) 등이 설명되고 있다. 이들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암벽등반기술, 암벽 등반장비, 확보법, 하강법이 된다.

등암술편에서는 밸런스 클라이밍을 균형등(均衡登)으로 보신법편에서 어깨확보법은 견관보법(肩關係法)으로 표현하고 있다.

강하법편에서는 두가지의 하강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복각식(復脚式)과 단각식(單脚式)이 그것이다. 다음 글은 강하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바줄을 사채기(필자주 : 사타구니의 평안도 방언)로 넣어 왼편 넓적다리에 한번 감아둘러 우편 다리 아래로 되로 뽑아내서 쥐면 단각이 되고, 오른편 궁둥이로 돌려 악으로 흉부(胸部)를 사단(斜斷)하게 왼편 어깨 뒤로 느리고 손의 위치는 흉부에 둔다. 그러면 복각식이 되는 것이다’.

복각식은 S자 또는 몸자라고 하는 둘퍼식(Duifersitz) 하강 방법이다. 보신법을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 제2장 양정산악부의 탄생과 일제하의 활동

### 1. 산악부의 기원

길게는 20여년 짧게는 10년간의 여명기를 통하여 양정교 지에는 등산활동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처음에는 전학년 조직이거나 체계적인 흐름의 조직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1933년 지방에서 유학 온 김영상(金永上), 임동규(林東圭), 이석중(李奭鍾), 최기덕(崔基惠), 한상욱(韓相旭), 안필수(安弼洙), 김상국(金相國), 김성근(金聖根), 안병현



1937년 2월 3일 졸업생과 함께 학교 정문에서 기념 촬영한 산악부원들. 이들은 34년부터 함께 활동한 멤버들이다.

(安炳憲), 김호민(金浩珉), 신태성(申泰聖), 홍정삼(洪政三), 고종락(高鍾樂) 등이 중심이 되어 산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서대문, 홍안문 앞(전 서울중학교앞)에 모여서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을 두루 찾아 등산하는 것을 즐거운 일과로 삼았었다.

그해 가을에는 조직적인 산행을 갖추자는 의견으로 여러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 끝에 만든 것이 하이킹부였다. 이때부터는 'HIKING'이란 영자로 된 배지를 만들어 달았고 산행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났다. 1934년에는 하이킹부란 명칭을 '산악부'로 개칭하고 최기덕(崔基惠)을 리더로 산악부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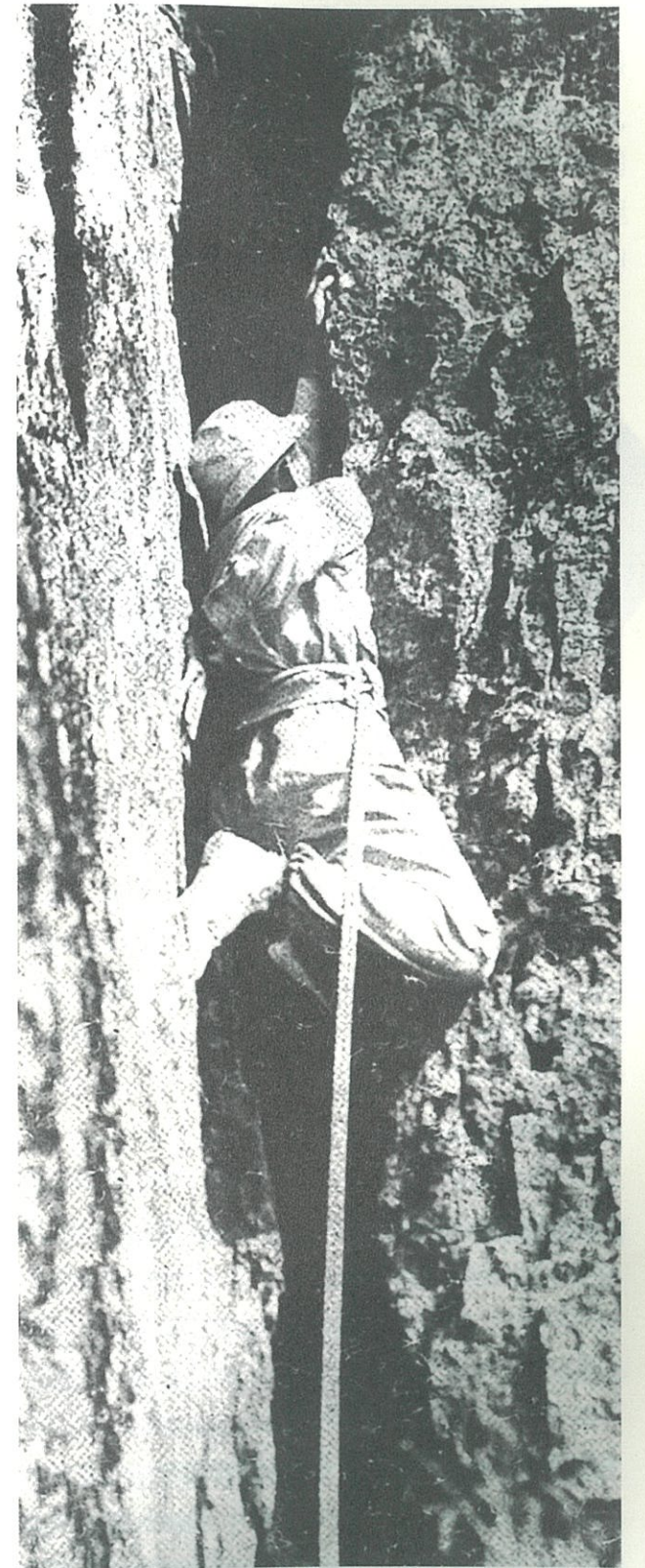
1927년 일본 입교(立敎)대학 영문과 출신의 황욱(黃澳) 선생이 양정학교에 부임하고 30년대 초반부터 암벽등반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게 되었고 1934년부터는 산악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 산악활동은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이때부터 부원들의 복장과 장비가 바뀌었으며 일요일 산행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으로 늘어나며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지에서 암벽등반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김교신 선생이 학교에 '무례사네' 씨클을 만들었는데 그 참여 학생들의 대부분이 등산부원이었다. 김교신 선생은 『성서조선(聖書朝鮮)』을 월간지로 발행하면서 일제 하에서 종교(무교회주의자)활동과 독립의 애국충정을 감시를 받아가며 국내에 널리 심어 주신 분으로 1943년에

는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45년 4월 25일 조국의 광복을 보시지 못하시고 애석하게 영면하신 분이다. '무례사네' 씨클의 주축이 된 산악부원들은 무례사네와 병행하면서 산과 사찰, 그리고 고분과 고적을 답사하게 되면서 그에 얽힌 역사 연구와 함께 선생의 우국정신 사상을 이어 받게 된다. 김교신 선생은 당시 산악부와 무례사네회를 이끌고 있던 최기덕, 한상욱, 김상국, 김성근, 안병현, 김호민, 고종락 등의 담임 선생이기도 했다.

1935년 서울 근교의 암벽등반으로 다져진 산악부는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외국 등반가들의 활동사, 고봉정복 기록, 암벽등반 기술과 장비 등 산악인들의 저서를 수집하게 되었고 아울러 산악활동에 대한 일반지식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원들의 개인부담으로 기본 장비를 갖추기에는 애로가 많았다. 특히 장비부족으로 암벽등반 때에는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하게 되어 불평도 많았다. 당시 전국 고보(高普)에는 등록된 산악부가 없었고 운동부의 개념이 경기운영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1937년 리더 최기덕의 산악부 보고에서 운동부 등록이 어려웠음을 가슴에 맺었던 마음을 싣토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는 세계등산가의 고귀한 희생(犧牲)을 들어 가며 산악활동이야말로 대자연을 상대로 한 무한의 스포츠임을 강조하고 후배들에게는 격려의 메세지로 담아 놓았다.

1936년 국내 고봉 준령 답사의 꿈을 키우면서 지리, 기상 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 연구하면서 암벽등반으로 체력 단련과 함께 방학을 이용한 동계 등반계획을 일차로 지리산과 관모봉으로 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게 된다. 그러나 장비부족의 어려움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다음 해 1937년 3월 18일(시험방학을 이용하여) 일주간의 계획으로 최기덕을 리더로 한 5명의 대원이 양정산악부의 명예를 걸고 대망의 지리산 영봉을 정복코자 장도에 오른다. 이 해 3월 25일 국내 각 신문사에서는 "해발 1900미터급 설봉(雪峰)을 정복, 양정산악부원 5용사(五勇士) 지리산을 정복하고 하산" 등 대서특필 기사로 보도했다. 특히 경성



1936년 도봉산 만장봉 침니를 등반중인 최기덕.



일보는 전인미답의 지리산의 고봉 반야봉과 천왕봉을 정복한 것은 1936년 8월 9일 손기정 선수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이래 양정고보에 안겨 준 두번째 쾌거라고 극찬하며 보도하였다. 또한 조선일보사에서는 리더 최기덕의 지리산 등반기를 5회에 걸쳐 학생 작품으로 연재하였다. 같은 해 4월에 학교당국은 산악부의 일대장거를 높이 평가하고 부원들의 숙원이던 운동부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식적인 '양정산악부'가 탄생하였다.

(최기봉/34회)

## 2. 양정산악부 배지와 등산장비

1930년대 양정산악부의 배지, 페넌트, 흉장(胸章), 천막 등은 우리나라 등반사상 최초로 도안 제작된 것으로 귀중한 등반자료이다. 당시의 사진과 기록들은 잘 보존되어 전해오고 있다.

휘장(徽章)(1934년~1945년)

1) 1934년 산악반으로 개칭(改稱)되기전 하이킹반 시절의 배지

### HIKING

2) 태극휘장(太極徽章)

만주사변의 격동기(발발 3년)에 일제는 조선민족에 대한 일본황국신민(日本皇國臣民)으로의 사상전환을 목적으로 정신작흥주간(精神作興週間)등을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매년 실시했다. 이들의 폭정(暴政)이 날로 고조되던 당시 민족사상을 배경으로 태극기를 그려 놓았다. 태극(太極)을 바로 세워서 원내를 산(山)과 수(水)의 약자(略字) S로 표시하고 위를 터서 C로 만든 다음 세군데에 절괘(切卦)를 붙여 Y자와 山자로 강하게 표현하였음은 Y.C.山과 '蒙以 養正 養心正己'라고 하는 주역(周易)의 산수괘(山水卦)에도 뿌리

하고 있다.

이 휘장은 양정산악부의 대표적 상징으로 산악기(山岳旗), 배지, 페넌트등에 사용되어 왔다. 태극표시의 이야기는 오직 핵심부원(核心部員)만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왔을 뿐이었다고 한다.

※김교신(金敎臣) 선생께 조선에도 국기(國旗)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였더니(당시 상황으로 그럴 수는 없고) 한참 만에 서대문(西大門)에 있는 독립문(獨立門)에 새겨져 있으니 직접 가서 보라하셨다는 말을 최기덕(崔基惠) 선배가 전해 주었다.



Y字 : 청색 S.C字 : 적색

3) Y.C. 피켈 배지 : 은(銀)으로 만들어 졌으며 Y.C.는 금색도금(金色鍍金)되었다.



4) 산악 배지(1950년)



5) 산악반 배지(1958년~현재)



41회 조경행 회원의 부친께서 디자인한 재학생 배지



6) 현재의 산악회 배지 : 양정산악회가 창립된 지 2년 후인 1968년 12월 7일 이사회에서 결정되었

다. 전체구도를 △형의 산으로 표현하였고 에델바이스꽃은 고산을, 단풍잎은 낮은 산을 뜻한다. 한편 오렌지색은 양정 학교의 상징이고 검정색은 양정산악회의 무궁한 힘과 투지를, 흰색은 청결과 겸손을 뜻한 것이다. 단풍잎의 구상은 29회 김기령(金基鈴, 1944년도 산악부장)이 제공한 것이다.

페넌트 : 1937년도 지리산 정복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페넌트는 우리나라 산악사상 처음으로 제작된 페넌트이다.



흉장(패)

: 등산복 좌측 가슴에 붙였던 오렌지색 바탕에 흑색(黑色)자수(刺繡)로 '養正'이라 새긴 발본체(拔本體)의 글씨다.

### 養 正

· 포지색(布地色) : 오렌지 · 자색(字色) : 黑色刺繡

· 크기 : 4.5 × 8.0cm

오렌지색의 유래는 1921년 봉래동(蓬萊洞) 교사(校舍) 일대가 감나무골이어서 가을에 잎없는 감나무에 영글어 매달려 있는 주홍빛 감을 보고 교사 한 분이 오렌지색 운동복을 착안하게 되었다고 한다. 1922년 10월 국내육상대회때 처음으로 오렌지 팬티를 입고 출전했다고 전해진다.

교내 운동대회때면 봉래동 교정 동측 절벽위에서 산악부원들이 자일을 타고 하강시범(下降示範)을 과시(誇示)하며 학생들에게 등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고 이때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대형 오렌지 기(旗)를 꽂았었다.

장 비

천막 : 1937년 4월 학교로부터 처음으로 숙원이던 운동부

예산을 할애(割愛)받게된 산악부는 그때까지의 허술했던 개인 등산장비와는 달리 산악부 공용의 고급장비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7인용 천막 두동을 비롯하여 자일, 취사도구, 피켈과 카라비너 등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양정고보 제 2대 교장 서예가 정석(丁石) 안종원(安鍾元) 선생께서 천막에 새길 '養正'이란 해서(楷書) 두 자를 손수 써 주셨다.



1938년의 양정산악부 장비

※상기 배지와 장비는 1950년 6.25 전까지 사용되어 왔다.

자일(Rope)

30년대를 거쳐 내려와 40년대까지 사용했던 로프는 길이 30미터와 40미터짜리 두 동으로 마닐라 삼(麻)으로 만든 이태리제이다. 상품명은 이타세끼류다쓰라고 한다.

등산화

1935년~1944년 : 트리코니靴와 무가靴(스위스제), 군화(일제), 농구화(일제),

1940년~1950년 : 지까다빌(일제)

1940년~1950년 : 군화(일제, 미제), 농구화(일제), 지까다비(일제), 수제(手製, 천막포

1940년~1950년 : 와 타이어 고무로 만든것)

註 : 트리코니靴와 무가靴는 28회 교회성(44년 졸업)까지 착용했다. 트리코니는 록 클라이밍시에 주로 착용하지만



무가화는 워킹등산에서 사용되었다. 등산화에 부착되는 쇠  
장은 4조(Ⅳ), 8조, 10조 등 다양하며 아이젠 대응으로 암  
벽, 설벽등반시에는 필수용구가 된다. 1930년대 우리나라  
에 수입된 등산화는 스위스제로서 일본인들이 많이 사용해  
왔는데 1940년대에는 국내에서도 제작판매하는 곳이 두군  
데 있었다. 당시 가격은 약 30에서 50원(圓) 정도였다고 한  
다. 등산화의 종류로는 스위스제 트리코니(Triconni)-  
No.3, No.5, No.7 등으로 등산화 좌우 일식(一式)에 No.5  
의 경우 장의 수가 약 20여 개로 되어 있지만 용도에 따라  
부착수(附着數)도 달라진다.

### 취사도구

1935년~1945년 : 알콜램프가 들어 있는 3단 알루미늄제  
코펠(일제), 군용반합(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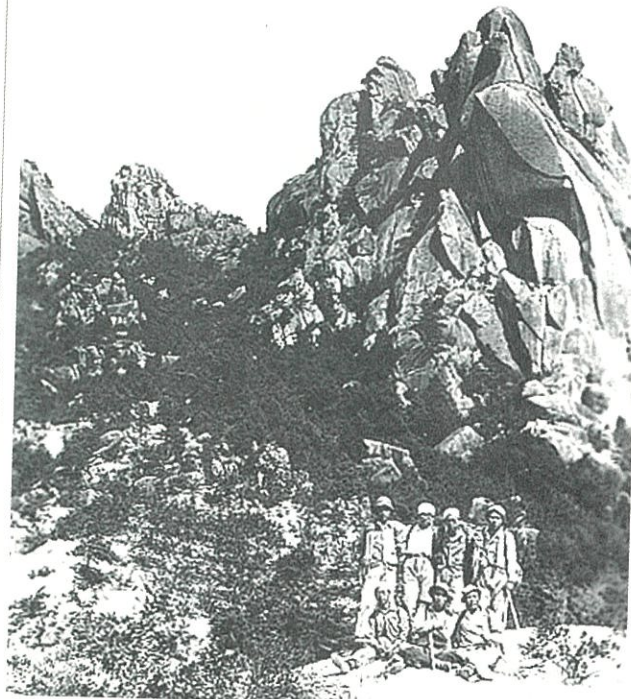
1945년~1950년 : 휘발유 버너(미제), 군용반합(미제, 일제)

## 3. 1937년의 양정산악부 보고

\* 아래 보고기는 양정교지에 산악부 리더 최기덕이 쓴 글이다.

등산(登山)이라 하면, 대개가 유한배(有閑輩)의 심심풀이  
나, 혹은 유산자(有産者)의 돈 쓰는 한 방편이라고 밖에는  
더 알아주지 않는 우리 사회의 등산관은 실로 한심하기 짝  
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등산이란 결코 그러한 쓸데없는 것  
이 아니요, 대자연을 상대로 육신을 단련하며 호연한 기개  
를 기르는 일종의 고결무쌍(高潔無雙)한 운동인 동시에 같  
은 사람에게 참되고 힘진 교훈을 주는 크나큰 스승이다. 등  
산은 다른 운동과 달라서 그 상대가 같은 사람이 아니요,  
한걸음 더 나아가 무한대의 대자연이다. 이 점이 다른 운동  
과 판연(判然)하게 틀리는 등산의 특징일 것이다.

보라! 과연 등산은 유한배의 소일거리일까? 저 실질강건  
(實質剛健)한 오늘날의 독일 국민성과 그들의 완강한 체구  
가 누차(累次)나 마봉 낭가바르밧에 있어서의 비통한 희생  
자를 낸 결정이라 하면, 실로 등산은 유산자의 돈 쓰는 방



1937년 도봉산에 오른 양정산악부원들. 앞줄 좌로부터 한상욱,  
안필수, 김상국, 뒷줄 우로부터 최기덕, 노정환, 김성근.

편일까? 아니다! 저 만년설에 덮인 채 영원히 인류를 조롱  
하려는 마악(魔嶽) 낭가바르밧을 항복 받으려던 저네들의  
참담한 최후가 붕설(崩雪) 속에 깊이 묻혀지고야 말았다.  
그러니 저들의 영혼인들 고히 잠들소냐? 저들의 영혼은 끊  
임없이 우리 인류를 부르고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그  
들의 소원을 달성하기까지는 눈감지 못하리라. 가엾다! 저  
네들! 저들은 할 일이 없고 돈이 많아서 저다지도 비명(悲  
鳴)을 내고, 애처러운 꼴을 지었겠는가? 말하여 보소! 저들  
의 답답한 가슴을 가라앉히고 또 감지 못하는 눈을 감도록  
말하여 보라! 뭐라 하리요? 별도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산악부의 기(旗) 밑으로 모이는 것이 저네들을 위로하  
기에 빠른 길일 것이다. 그러면, 교우 제현이여! 적게는 우  
리 산악계를 위하여 크게는 잠 못 이루고 애 태우는 저들을  
위하여 하루 빨리 산악부와 발을 맞추라.

다음에는, 우리 산악부의 개혁과 앞날의 희망을 말하려 한  
다. 우리 학교에 산악부라는 명칭이 있는 지는 이미 오랜  
듯하나, 확실한 존재를 보기는 금년에 와서였다. 우리 산악

부에 가장 유서 깊은 무례사네는 김교신 선생께서 소개하  
신 것이었다. 우리는 이 무례사네로 말미암아 많은 지도와  
자극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 우리  
는 경성을 중심으로 방방곡곡의 절승가경과 전인미답의 고  
산준령을 여지없이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세인의 놀라움이  
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기어이 설중(雪中) 지리산을  
무난히 정복하여 만장의 기쁨을 올리었다. 이로부터 양정  
산악부의 존재는 한층 엄연해졌고 따라서, 일반사회에서도  
격찬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더욱 많은 경험을  
쌓고 기술을 연마하여 앞날의 기회만을 엿보아 왔다. 이번  
에 하계휴가에도 엄청난 플랜이 있었으나, 갑자기 변한 시  
국관계로 부득이 중지하여야 하는 쓰라린 선언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신흥 양정산악부의 위력은 형용할 수 없이 크  
다. 앞으로의 바람도 매우 큰 동시에 이 바람의 성취는 오  
직 재교 동창의 끊임없는 열성과 노력에 달리었다고 말하  
고 싶다. 그래서 한낱 성의있는 교우들의 분연흥기(憤然興  
起)함을 충심(衷心)으로 바라마지 아니하는 바이다.

현재 열성있는 부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기덕, 김상국, 김성근, 한상욱, 안필수, 홍치삼, 신태  
성, 이상선(李相瑄), 윤오룡(尹五龍), 전일(全一), 노정환  
(盧程煥).

### 등반활동

#### 1) 지리산

제1일 : 경성발(오후 10시 50분)~익일 이리에서 승환  
(오전 6시 20분)

제2일 : 남원착(오전 9시 8분)~남원견학(발 오후 1시 50  
분)~구례읍착(오후 6시)~6km~화엄에서 일박.

제3일 : 화엄사발(오전 9시)~양인(洋人) 피서지착(오후 1시)  
약 8km~노고단착(오후 1시 20분)~반야봉착(오후 4  
시 반) 약 7km~연동(蓮洞)착(오후 7시 5분) 약  
5km~1박.

제4일 : 연동발(오전 9시)~7불암착(오전 10시) 약 3km(발  
오전 11시)~범왕리(凡旺里)착(오전 11시 50분)~삼  
정~덕평박.

제5일 : 덕평발(오전 6시 반)~세석착(오전 9시 20분) 약  
8km~장두백이착(오전 11시) 약 4km~천안발(지  
리산 주안착, 정오) 약 2km, 오후 1시 북쪽 연맥  
(連脈)을 따라 유평리착(오후 7시 20분) 약  
14km, 유평리에서 일박.

제6일 : 유평리발(오전 9시)~수철리(水鐵里)착(오전 11시)  
약 8km~산청착(오전 12시 반) 약 6km(발 오후 1시  
반)~기차로 진주착(오후 2시 20분)(발 오후 4시  
반)~기차로 부산착(오후 9시 25분), 춘여여관(春汝  
旅館) 일박.

제7일 : 부산발~해운대~부산(오후 9시 5분)~경성착  
익일 오전 8시.

#### 2) 박연폭포 및 대흥산성 코스

제1일 : 경성발(오후 2시 13분)~열차로 개성착(오후 3시  
50분), 약 1시간 준비후(오후 5시 발) 도보로 5정문  
착(약 3km)~삼신리(약 8km 1시간 반)~석반평촌  
(夕飯坪村)(6km 약 1시간 15분)~정명사고개~기곡  
리 약 8km (약 1시간 40분)~하백석동 약 2km(20  
분)~박연여관 일박.

제2일 : 하백석동발(오전 7시)~대흥사(약 2km)~남문(약  
3km)~안달안 남문(약 1km)~현문리(약 4km)~  
점심후 빙고동(약 7km)~성균관(약 4km)~개성  
역(약 4km) 발 오후 8시 7분, 경성착(오후 9시  
50분).

#### 3) 남한산성

경성 동대문발(궐동차)~독점 유원지(도보) 도중 2회 나무  
를 건넌~송파(약 3km)~장지리(약 5km)~학암리(약  
2km)~남문(약 4km)~서장대(약 1km)~백제 온조왕묘, 광



무관 원절동(약 1km)~서문(약 1km)~오금리(약 6km)~광진교 광장리(약 8km), 궤동차로 동대문착

#### 4) 북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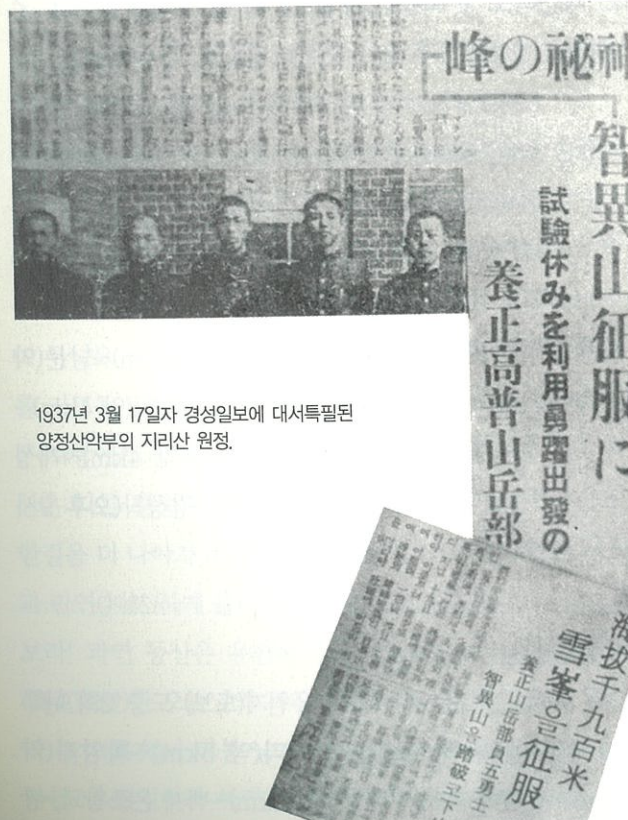
영천~폭포동(약 8km)~중흥각(약 3km)~대서문변곡(약 1km)~상운사(약 3km)~위문(약 1km)~백운대~위문~태고사(약 3km)~대남문~문수암(약 2km)~평창리(약 5km)~창의문~효자동(약 2km).

#### 5) 관악산

노량진-동작리(약 3km)-승방평(약 3km)-남태령-보살암(약 2km)-연주대(약 4km)-연주암(약 4km)-자운동

### 4. 일간지에 보도된 최초의 지리산 종주 (1937년)

“양정 지리산 등반대 경성발 장도에”



1937년 3월 17일자 경성일보에 대서특필된 양정산악부의 지리산 원정.

양정고보 산악부원 최기덕, 안필수, 김상국, 이상선, 전일 등 일행 5명은 약 일주간 예정으로 경남 지리산 영봉을 답 파코져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 경성역발 목포행 열차로 친지들의 환송리에 일로(一路) 장도에 오른바 일행은 오는 (來) 25일경에 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1937년 3월 17일 조선일보-

“신비의 봉 지리산 정복에 시험휴가를 이용하여 용약(勇躍) 출발하는 양정고보 산악부원”

마라톤 왕국 양정고보에서는 경기계(競技界)의 패자(覇者)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등산계에서도 패권(霸權)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휴가를 이용하여 4년생 안필수(20)군 외 4명의 산악부원으로 구성된 탐험파트를 전인미답의 지리산 정복에 파견하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등학생으로서 처음보는 장거이니만치 등산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일행은 18일 오후 11시 10분 목포행 열차로 백설에 둘러싸인 신비의 꿈에 잠겨있는 지리산을 향하여 출발하는데 자일이나 피켈 같은 사치스러운 등산장구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교복에 자취도구(自炊道具)를 걸머진 간단한 차림으로 오직 열과 힘만으로 준봉준령에 도전한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다. 우선, 남원(南原)으로부터의 등산코스를 택하여, 19일에 반야봉, 노고단을 거쳐서 20일 1,915미터의 지리산 주봉의 정상을 정복한다는 계획이다.

-1937년 3월 17일 경성일보-

- 1937년 3월 18일~1937년 3월 25일(8일간)
- 참가자 : 최기덕(중 22회), 안필수(중 22회), 김상국(중 22회), 이상선(중 23회), 전일(중 24회)
- 일 정 : 3월 18일 남원발(기차편) 19일 오전 남원착
- 3월 19일 남원발(기차편) 구례구착(자동차편)~구례착(도보)~화엄사착

- 3월 20일 화엄사발~노고단~반야봉~연동민가
- 3월 21일 연동~칠불암~범왕리~삼정~덕평
- 3월 22일 덕평~세석~장두메기~통천문~천왕봉~유평리
- 3월 23일 유평~산청~진주~부산
- 3월 24일 부산~해운대~부산~경성

#### 지리산 등반기

\* 양정산악부는 국내 최초로 1937년 3월 18일부터 8일간 지리산 등반을 끝내고, 당시 리더였던 최기덕 부장이 등반기를 썼고, 조선일보에서는 이 글을 5회에 걸쳐서 연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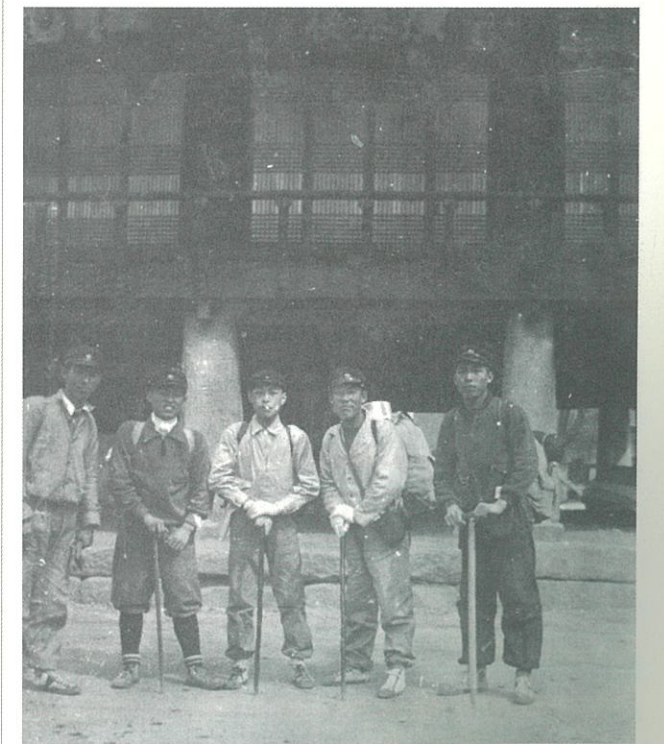
#### 1) 목포행 열차로 경성출발

등산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충분치 못한 우리로서는 한편, 공포의 감(感)을 느끼면서도 감히 저 험준한 지리산 정복을 목표하고 3월 18일 오후 11시 10분 목포행 열차로 본교 동창들과 선배 및 신문사 등의 친절한 환송리에 경성을 떠났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성원을 받아 한편 책임이 더 무거웠다. 수라장 같은 차내는 어느덧 물을 뿌린 듯이 고요해지고, 다만 기차소리에 맞는 흔들림만이 우리의 잠을 훼방하였다. 그러나, 극도로 긴장된 우리로는 잠이 든다는 것이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조치원을 지나고 대전이 가까와 오도록 일행은 한 번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느덧 대전도 지나쳤다. 피로할 대로 피로하였던 우리는 어느덧 잠이 들었는데, 한 두 시간에 지나지 않는 얇은 잠이 들었다. 불과 한두 시간에 지나지 못하는 짧은 잠이었으나 고맙기 이를 데 없었다.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기차는 이리(裡里)에 닿는다. 우리는 이곳서 여수행 기차로 바꿔 올랐다. (중략)

오후 4시반 구례를 떠나 평탄한 길로 지는 해(太陽)와 경쟁을 하며 연기나는 수림 속의 화엄사를 건너보며 걸음을 빨리 하였다. 위험하던 하늘은 기어코 밝기 시작한다. 견사(絹絲)와도 같은 맹춘(孟春)의 세우(細雨)가 땀에 젖은 얼굴

과 손등에 떨어진다. 땀뻘 몸이 식은 듯도 하여 시원하면서도 한편 귀찮기도 하다. 날은 점점 어두워가고 빗방울은 차차 수가 늘어간다. 그래도 길이 좋으므로 피치는 빠르다. 도중 촌락에는 개나리꽃과 산수화가 만발하여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봄의 본표정을 맛보았다. 북국에 사는 우리의 눈에는 놀라운 정치였다. 산 속에 다다르고부터 물소리를 귀로 들으며 송죽림 사이로 약 1킬로를 더 가니(중간에 山門을 지남) 대본산 화엄사(華嚴寺)이다. 때는 오후 6시. 황혼과 설연(雪煙)중에 막연히 보이나 대규모의 고찰임을 알 수 있다. 청정한 송죽림이 에워싼 고요한 절이었다. 당장 허기에 지친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나위도 없이 석식준비로 들어갔고 오후 8시경에 석식은 끝났다. 그러나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여전히 흐르는 물소리 위에 내리고 있다. 우리는 침침한 석유등 불빛에 둘러앉아 내일의 계획을 두런두런 상의한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비는 여전히 계속 내리는데 피곤한 일



1937년 3월 지리산 등반 직전 남원 광한루를 들른 대원들. 좌로부터 안필수, 이상선, 전일, 김상국, 최기덕.



행은 잠이 들기 시작한다. 나는 매우 근심이 되어 잠은 들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리고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른다. 만일 비가 그치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비가 그치더라도 중복(中腹) 이상에는 눈이 있을 터인데 길을 어떻게 찾아갈까? 미끄럽지나 않을까? 밤은 이미 깊어졌다. 나는 들락날락하며 하늘을 원망도 하고 또 하늘에 애원도 하여 보았다. 극도로 피로하였던 몸인지라 자정이 넘으니 더 견딜 힘이 없어 그만 잠에 잠기었다.

이튿날(20일) 눈이 떨어지자 나의 신경은 칼날같이 예민하여졌다. 비내리는 소리가 들리나 안들리나 두려운 한편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어지러운 물소리와 짐승들의 아침 먹이 찾는 굶주린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고, 또 있는 것도 같아 의심과 불안이 가득찬 얼굴로 검검한 문밖을 나서니 비는 갠 듯도 하나 구름이 전산을 덮었다. 날은 개인 것도 같고 안 개인 것도 같다. 옥같이 맑고 얼음같이 찬 개울 물에 세수를 하고 나니 피로에 잠기었던 몸이 날 듯이 가볍고 정신이 펴진다.

몽게몽게 일어나는 구름이 다소 견히기를 기다려 오전 9시에 화엄사를 떠나 동북쪽 운연(雲煙)에 가득한 깊은 골짜기를 오르기 시작하였다. 양편에는 울밀한 송죽림이 우거졌고 음습한 골짜기에는 소태류(蘇苔類)가 누적되어 있다. 이 검검하고 습한 골짜기를 지나면 잠깐 하늘이 보이고, 우편(右便)에는 뾰뾰한 죽림이 올려보인다. 길을 계곡의 우편으로 잡아 약 5분 정도 가면 다시 좌편(左便)으로 걷는다. 이곳에는 2~3호의 인가가 있다. 이로부터 앞으로는 비탈도 심하거나 소나무의 거목들이 마음껏 우거져서 하늘도 보이지 않는다. 화엄사와 구례읍을 부감함도 이곳을 지나고서는 절정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기회가 없다. 점점히 구름에 가린 아침의 구례읍은 마치 한쪽의 동양화를 보는 것과 같다. 어지럽게 울던 짐승의 소리는 햇볕으로 괴괴하게 가셔지고 우리의 호각소리가 숲 속에 적막을 깨트려 간다. 물소리 요란한 계곡을 우편에 두고 인력이 미치지 못한 오직 대자연만이 넘쳐흐르는 심림(深林)사이를 꾸불꾸불 돌

아 오르니 오르면 오를수록 넘어진 나무들로 또는 거목들로 험악을 더할 뿐이다. 태류(苔類)는 수목이나 암석이나 땅이나 사정없이 몇 겹으로 덮여졌다. 오전 10시 반경에 우리는 이 숲을 벗어나서 낙엽의 잡목이 엉켜 있고 일광이 따뜻이 내려쬐는 곳에 당도하였다.

이곳은 해발 450여 미터 되는 지점이나, 남면(南面)한 바위 밑에는 힘 있게 새풀씨가 돌아 있다. 또 이곳을 경계로 식물의 분포가 확연하게 둘로 갈라져 있다. 아래로는 상록수의 종류(주로 松)이고 위로는 낙엽수의 종류(이곳에서 부르는 써나무, 노가지나무, 다래넝쿨 등)이다. 대나무와 태류(苔類)는 상하에 다 분포되어 있다. 이로부터는 계곡에 흐르는 물도 분양이 적고 연봉에는 백운이 덮여 있다.

## 2) 노고단 지나 반야봉에 오르다

일광은 따뜻하나 바람은 대단히 냉랭하다. 해발 600미터쯤 되는 데서 개울은 좌우로 갈라진다. 우측 개울을 따라 오르면 바로 머리 위로 금잔디가 곱게 깔린 재(嶺)가 보인다. 이것이 노고단(老姑壇) 서남에 있는 재이다. 이 재를 오르기 약 1킬로 앞부터의 경사는 대단히 심하고 험준하기도 말할 수 없다. 양장(羊腸)과 같이 구불거리는 길은 매우 힘이 들었다. 우리는 10보(步)에 한 호흡으로 구슬같은 땀을 흘리며 영시반(零時半)에 재에 올랐다. 불어 오는 바람은 시원하기도 하였다.

노고단과 서양인(西洋人) 피서지는 백설에 덮여 엄동을 꿈꾸고 있었다. 앞으로는 계곡을 바라보고 좌우 양편으로는 깨끗한 지리산 연봉이 용립(聳立)하여 보인다. 이 두 연봉이 합한 곳에 노고단이 되어 있으니 서양인 피서지는 서향의 삼태안 같다.

우리는 서양인 피서지가 잠시라도 더 보고 싶지가 않았다. 깨끗한 백설을 밟으며 노고단으로 올라간다. 불안에 싸인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 주는 백설은 고맙기 짝이 없다. 오후 1시 20분 우리는 노고단에 올랐다. 동으로는 운중(雲中)에 머리를 박고 있는 반야봉이 가까이 보

이고 그 뒤로는 운연중(雲煙中)에 천왕봉(天王峰, 주봉)의 웅자가 보인다.

우리의 가슴은 뛰고 기쁘다. 천봉만악(千峰萬嶽)의 내다른 곳은 어디인지도 모르게 저회(低廻)하는 운무에 가리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망망하게 내려다 보이는 무한한 운해! 점점이 뿔려진 곳으로 막연하게 나타나는 풍경! 그것은 마치 대해상(大海上)의 고도(孤島)와도 같다. 우리는 땀에 목욕한 몸을 햇빛과 바람에 말리며 사해를 감시(瞰視)한다. 그 순간에 우리의 심정(心影)이 신선인들 맞볼 것인가?

바쁜 우리는 더 지체할 여유가 없어 백설에 고요히 잠든 서양인 피서지를 한번 더 내려다보고 동으로 동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엄동을 꿈꾸는 설중(雪中)의 소경(小經)이나마 좌우의 수목들로 인하여 겨우 분별할 수가 있었다. 길은 연맥(連脈)의 남록(南麓) 혹은 북록(北麓)을 양장(羊腸)과 같이 구불거리었다. 점점이 눈이 녹은 양지에는 낙엽이 밟이 문히고 마른 풀이 어지럽게 엉켜 있어 성하(盛夏)의 험악함을 상상케 한다. 오후 2시경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을 벗어나 겨우내 백설에 누리고 닦인 깨끗하고 고운 고초(枯草)가 깔린 춘국(春國)을 만났다. 내려 쪼이는 햇볕은 유심히 따스하고 불어 오는 바람도 얼었던 우리의 얼굴을 녹이는 듯하다.

우리는 일식(一息)을 하면서 찬 점심을 기겁케 먹었다. 남으로는 죽송(竹松)의 순서로 계단과 같이 확연하게 늘려 있고, 북으로는 진달래 등등의 잡목이 뾰뾰하게 들어 박혔다. 시계는 2시 40분을 가리키고 중천을 지난 해는 우리의 앞길을 재촉한다. 힘 없는 다리를 끌면서도 앞에 보이는 반야봉의 웅자에 우리 일행의 어린 가슴에는 필설(筆舌)의 능(能)을 초월한 감회가 돈다.

노고단에서 반야봉까지는 약 8킬로나 되고 다소 험한 곳도 있으나 대체로 연봉을 따르는 길이라 사방에 조망이 풍부하므로 힘드는 것을 잊게 하는 좋은 길이다. 그러나 반야봉에 이르기 약 1킬로 전 지점으로부터는 잡목도 많거니와 비탈도 급하여 맹수의 폭악하게 굴던 자리가 눈에 확연히 나타나 있다. 어떠한 곳은 방금 파헤친 곳도 있다. 우리는

일층 더 긴장하여 각자 허리띠를 만져 보며 호각으로 앞길을 경비하였다.

오후 4시 반 우리는 기어히 백설 덮인 저 해발 1728미터 되는 반야봉 위에 올라섰다. 낙조에 가까운 해는 환희에 넘치는 “우리의 만세”를 기뻐하는 듯이 연중(煙中)으로부터 덮여 가는 오색의 영롱한 햇발을 무수히 던져 준다.

노고단이 서쪽에 굽어보이며 천왕봉(주봉)도 동으로 창연하게 보인다. 반야봉의 서남봉은 각종 초목이 엉켜졌고 동북록은 대체로 송류(松類)의 거목이 울밀(鬱密)하다. 나뭇잎(葉)도 없고 껍질도 없는 다만 허연 줄기만 남은 고산지대의 독특한 정경을 나타내는 고목들도 많이 서 있었다. 오직 환희에 충만된 우리는 어려움을 모르고 웃고 떠들기만 하였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산잔등을 넘어 떨어지기도 하여 약 1.5km를 지나니 앞이 트이고 수목이 적은 소경(小經)의 십자로로 된 곳에 이르렀다. 시계를 보니 6시 20분! 어둠은 사방에서 우리들을 싸들어 온다. 그러나 인가를 찾지 못한 우리 다섯 사람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인가는 보이지 않는다. 나그네들의 괴로움을 유감없이 맛보는 우리들은 당황치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낙담에 빠져 인가 찾기에만 급급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을 알고 예정과 같이 칠불암(七佛庵)으로 가려고 동남으로 뿔린 길을 접어들어 갔다.

송죽이 울창한 검검하고 음습한 계곡을 따라 짐승들을 쫓는 호각을 불며 마라톤식으로 뛰어 내려간다. 얼마 안되어 전신에 땀이 흐른다. 또 목이 말라 간다. 호각소리는 차차 희미해지고 약해진다. 오직 산간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물소리뿐이다. 약 30분이나 내려오니 거목이 우거져 있었다.

## 3) 산중의 사막 덕평

우리는 칠불암을 다녀서 잔돌(細石)까지 가기로 하고 힘 있는 보조(步調)로 연동(蓮洞)을 떠났다. 약 10분간 급한 언덕을 내려서 계곡을 우편(右便)에 두고 두세 채의 인가를 거



쳐 동으로 향한 길로 약 1시간 여를 오르내리면 고색이 창연한 칠불암에 이른다.

화엄사처럼 크지는 못하나 웅장한 맛이 있다. 기둥의 주위(周圍)가 직경 5미터나 되는 것도 있다. 석축의 땃돌은 파괴된 것이 많아 이 절은 거금 1826년 전 가야국 시대의 창설로 김해 독락국(篤洛國) 수로왕자(首露王子) 7인이 창설한 것이라 한다.



지리산 연동의 칠불암 및 민가

수로왕자는 8명이었는데 한 분은 왕위를 계승하였고 일곱 분은 다 같이 이곳에서(지금도 잔디밭이 남아 있음) 수도를 하여 칠불이 되었다 한다. 대웅전의 바른편 아래 저 유명한 아자방(亞字房)이 있다. 이것이 이 고찰이 창설되던 당시에 놓은 방이라 한다. 즉 1826년전의 방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가수(加手)하지 않았으나 의연히 옛과 한 모양이라 한다. 건물만은 2차나 중수하였다고 하며, 전에는 70여 명의 승려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다 가버리고 단지 세명의 노승이 있을 뿐이다.

오전 11시 칠불암의 산문(山門)을 나서서 무릎이 넘치는 낙엽을 발로 헤치며 울밀한 거목 사이로 동을 향하여 내려가면 범왕리(凡王里)에 이른다. 범왕리는 대개 밭이 많으나 소수의 계단식 논도 있는 마을이었다. 깊은 동리(洞里)가 운데를 지나 동북으로 계곡을 따라 올라간다. 이 언덕이 당

제라는 비교적 인적이 많은 길이다. 좌우 비탈에는 밭을 일구어서 감자를 심느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분망중(奔忙中)에 있다.

영(零)시 20분 재에 오르니 설중(雪中)의 잔돌(細石)과 천왕봉(主峰)이 뚜렷이 보이며, 우리의 힘든 마음을 식혀 주는 듯하다. 우리는 천왕봉의 웅자에 가슴이 뛰어서 빠른 피치로 삼정을 굽어보며 당제를 내려갔다. 다시 작은 길과 험난한 계곡을 건너 조금 걸으면 삼정에 이른다. 이곳이 삼정승 육판서가 살던 곳이라 한다. 오후 1시반 점심을 먹고 다시 올랐다. 삼정 마지막 주막에서 길을 동으로 틀어 약 60도나 되는 급경사를 오르면 4시경에 덕평에 이른다. 덕평(德坪)은 간단히 말하면 지리산중에 조그만 사막(沙漠)이다. 주위(周圍)는 약 4킬로나 되어 보이는 동남으로 좀 기울어진 곳이다. 점점이 초목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여섯 채의 산간초옥이 둘러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깨끗한 그리고 고요한 마을 같으나 살풍경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지금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마음껏 쉬고 싶었으나 시간이 허락하지(許) 않으므로 하는 수 없이 땀도 말리지 못하고 또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길을 동으로 잡아 들었다. 얼마쯤 가서 길은 이상하게도 지도와 맞지 않는다. 나는 비로소 길을 잘못 잡은 줄을 깨달았다. 시간으로 보아 이대로는 到底히 잔돌(細石)까지는 갈 수가 없다. 하는 수 없이 덕평의 최상동(最上洞)에 있는 인가까지 가기로 하여 빠른 피치로 길 없는 연맥(連脈)을 쫓기로 하였다.

얼마쯤 가다가 보니 부지중에 우리는 연봉의 동편을 걷고 있었다. 길은 길 같으나 역력치 못하고 또 괴기한 암석이 직립하여 험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다시 연맥(連脈)의 잔등을 오른다는 것은 용이치 못한 일임으로 길을 따라서 걷기만 하였다. 일행은 모두가 극도로 피로하였다. 얼마쯤 가다가 우리는 짐승을 잡기 위한 '똥(혹은 차위)'를 발견하였다. 아! 반갑다! 이로부터는 인가가 멀지 않은 것을 알았다. 길은 점점 아래로 내려갈 뿐이다. 지도를 조사하니 우

리는 대성리로 강하(降下)하고 있는 중이다. 대성리도 우리가 있는 지도에서 멀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밤을 대성리에서 쉬게 되면 내일의 예정이 어긋날까 염려하며 우리는 피로가 겹쳐서 덕평(德坪)의 최상동에 있는 인가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심하여 없는 용기나마 설당(雪糖)물 한 잔으로 다시 회복하여 가지고 치밀한 죽수(竹藪)를 다리와 두팔로 헤쳐 가면서 위로 위로 올라갔다.

힘드는 것도 모르고 땀 나는 것도 모르고, 다만 길을 잃은 것만이 두렵고 불안하다. 해는 차차 건너편 산과 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는 길을 걸을수록 점점 험해질 뿐이다. 오후 6시 반 우리는 기어이 험한 산잔등을 기어올랐다. 덕평 최상동(最上洞)인 다만 한 채의 낡은 집이 보인다. 해는 완전히 떨어졌는데, 우리는 미칠 듯이 반갑고 기뻐다. 넘어간 해도 그다지 원망스럽지가 않았다. 불어 오는 바람도 얼마 아니 되어 시원함을 잊게 한다. 땀에 젖어 든 옷은 척척하기 짝이 없고, 땀은 힘이 들어 흘린 땀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공포의 '땀' 일 것이다.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나서 그제야 배고픈 것을 알았다. 허기져 헤매든 곳을 다시 담소하며, 다시 함께 짐을 메고 인가로 갔다. 아! 우리는 이제껏 무엇을 찾았을까?... 이제까지 우리가 찾은 집은 인적이 끊어진 지 이미 오랜 허물어져 가는 아주 헌 집이었다. 실망!.....

아! 절망!..... 우리는 어쩔 줄을 몰랐다. 이 골짜기로부터 차차 인적이 없어 썩고 낡은 지붕, 허물어지고 떨어져 나간 창문들이며, 허물어진 아궁이, 여기서는 물을 찾을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이 덕평 본동(本洞)까지 내려가서 자려든 생각을 다시 바꾸어 한걸음으로 황혼을 바라보며 덕평을 향하여 심한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피치를 올려 7시 20분! 덕평에 도착하여 빈 방을 요청하니 방이 없어 더 빈 방을 찾아갈 수가 없다. 영영 원망스러운 추녀 끝에서 샘을 찾아 저녁밥을 짓기 시작하였다. 땅 그림자 비친 하늘에는 별들만이 박혀 있다. 점점이 구름에 가렸다가 이상하게 번득인다. 이 고요한 덕평! 이 고요한 밤! 우리를 위해 달과 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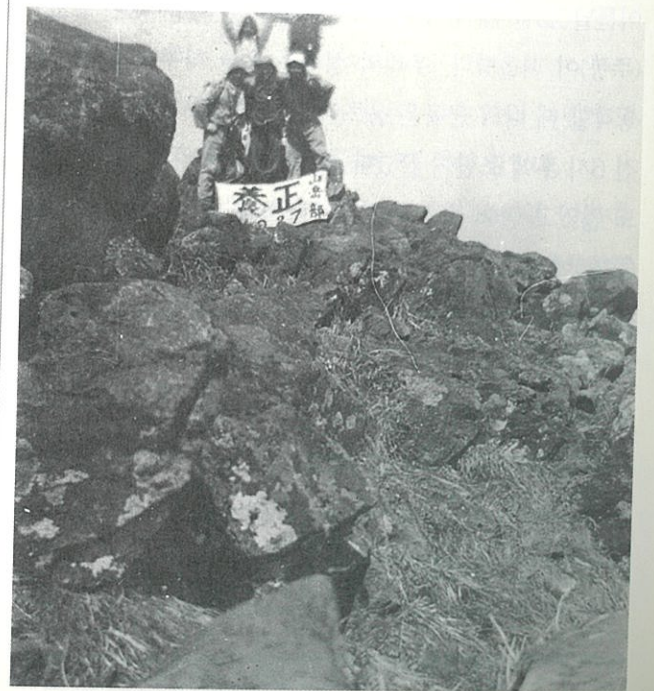
곱게 빛내 주시느뇨 우리 일행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저녁식사 준비에 착수하였다.

#### 4) 드디어 천왕봉에 오르다

어느덧 밥이 끓는다. 그러나 먹을 자리는 어디며, 잘 자리는 어디인가?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는 것이 여객의 한이라건만 우리는 다행히도 오아시스도 찾고 더구나 인가까지 만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일야(一夜)를 곱게 쉴 수 없는 가엾은 객이 되었다.

그네들은 거짓없는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없던 것이다. 옆 가족을 이리저리 몰아서 겨우 한 간방(間房)을 우리에게 빌려준다. "천사와 같은 그네들!" "진(塵)을 모르는 그네들!" 솔직한 그네들! 깨끗한 그네들! 우리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고맙고 반갑기 짝이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백배 사례하고 방에 들어가 저녁밥을 먹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커진다.

처음보는 '쌀밥!' 오래간만에 보는 쌀밥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오직 감자(甘藷)만을 상식(常食)하는 가련한 사람들



1937년 3월 22일 지리산 천왕봉에 오른 양정산악부 대원들.



이다. 어두운 등잔불에 불평치는 않으나 그 혈색과 힘없는 눈동자, 영양부족으로 비치는 근육등 모든 것이 가엾고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인자한 빛'을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말한다. '서울은 구경이 좋고 만주는 살기가 좋습니다!' 이곳도 애초는 땅이 넓고 곡식이 잘 되어 새로운 희망과 뜨거운 이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1년을 지내고 보니 가슴은 많고 돈은 없고 다시 세상을 찾아 나가려니 그럴 힘조차 없어 하는 수 없이 이곳에 있다우!.....

어쩌다 해나 사납지 않으면 겨우 연명이나 하고 그렇지 못하면 끼니도 거르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라우! 그래두 해마다 시세니 지세니 교육비니 무어니 무어니 해서 내일부터 끼니를 굶는 한이 있더라도 머나먼 산길에 무거운 감자를 지고 나간다우! 이렇게 서러운데가 어디 있수! 이런 답답할 데가 어디 있수!

좋은 세상을 구경도 못하고 하며 그들은 서울을 보고 싶어 하고, 만주를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안이 병병하여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22일 새벽) 눈이 떨어지자 나의 머리에는 천왕봉(主峰)이 떠올랐다. 우리의 성패는 오늘 하루에 달렸다고 생각할 때 나의 근육은 움츠려 들고 정신이 펄쩍 난다. 오전 6시 후에 조반이 끝났다. 문 밖을 나서니 날은 다 새지도 않았고 불어 오는 바람은 선선하기 짝이 없으며, 벽공(碧空)에 점점이 박힌 별들은 힘없이 꺾뻗인다. 우리의 몸은 찬바람으로 인하여 잠깐 동안에 식어 버렸다. 그러나 다시 걸음으로써 나는 열로 찬바람에 대항할 수 있었다.

동북으로 향한 길로 접어든지 약 40분이 지나자 오른쪽으로 일암(日岩)과 월암(月岩)이 굽어보이며 동시에 길은 침울(深鬱)한 밀림 사이로 들어가면서 동편으로 구부러진다. 이곳부터는 적설도 심하고 거목이 썩어 넘어진 것도 많아서 걷기에 매우 곤란하다. 대체로 길은 연봉의 북편을 도는데 오르내리는 변화가 대단히 심하였으나 그다지 가쁘지는 않다.

오전 9시 정각에 우리는 잔돌(細石)의 최고봉에 도착하였다. 잔돌은 정남향의 금잔디로 덮이고 이름 그대로의 잔돌이다. 부서져 있는 돌들은 마치 사람이 일부러 깨 놓은 것 같다. 동서로 약 4km나 되고 남북은 2km쯤 되는 타원형의 분지이다. 수목은 하나도 볼 수 없고, 잡초만이 무성하였던 자체만을 알 수가 있다. 멀리 서남단으로는 고찰, 신사의 옛터만이 내려다보이며, 반야봉, 노고단 등의 웅자가 보이고 천왕봉의 장엄한 모양이 눈앞에 가까이 보인다. 9시 20분 잔돌을 떠나 여전히 눈에 미끄러지고 땀으로 목욕하여 고산풍치가 늠름한 고목이 많은 가운데를 지나 장두맥이 재에 이르니 오전 11시였다. 조금 더 오르니 얼음과 바위 사이에서 샘물이 흐르는 것이었다. 눈으로 몸을 식히려던 우리는 미칠 듯이 반가웠다. 그 옆에는 허물어진 터만이 남아 있다. 이로부터는 비탈이 대단하고 모두가 빙판으로 되어 있다.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거목이 울창한 심림(深林)을 벗어나니 깊은 소봉(小峰)의 북편을 돈다. 눈은 키를 넘도록 쌓여 있다. 기고 뭉기며 소봉(小峰)을 돌아 드니 자연의 화강암으로 된 통천문이 설중(雪中)에 묻혀 있다. 우리는 이 문을 지나 오전 12시 정각! 저 "천왕봉(主峰)"을 완전히 정복하였다.

그 순간 우리는 흐르는 땀도 억제할 수 없이 있는 목소리를 다하여 "만세"를 연(連)하여 불렀다. "양정의 힘있는 교자로 지리산상(上)의 넓은 허공을 울렸다." 해발 1,915미터! 그 얼마나 높은 산인가! 우리가 그 얼마나 두려워하던 산인가! 우리의 숙원은 오늘 (22일)로서 유감없이 성취되고 말았다. 오직 지리산 절정에서만 볼 수 있는 광활한 벽공! 구불구불 엮드린 연맥(連脈)들! 혹은 혹은의 엄동을, 혹은 화창(和暢)한 방춘(芳春)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마치 최후의 승리를 획득한 패왕(霸王)과 같고, 첩첩이 엮드린 연맥(連脈)들은 굴복을 하는 것 같았다.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넓어지고 주위에 있는 만물들이 한없이 적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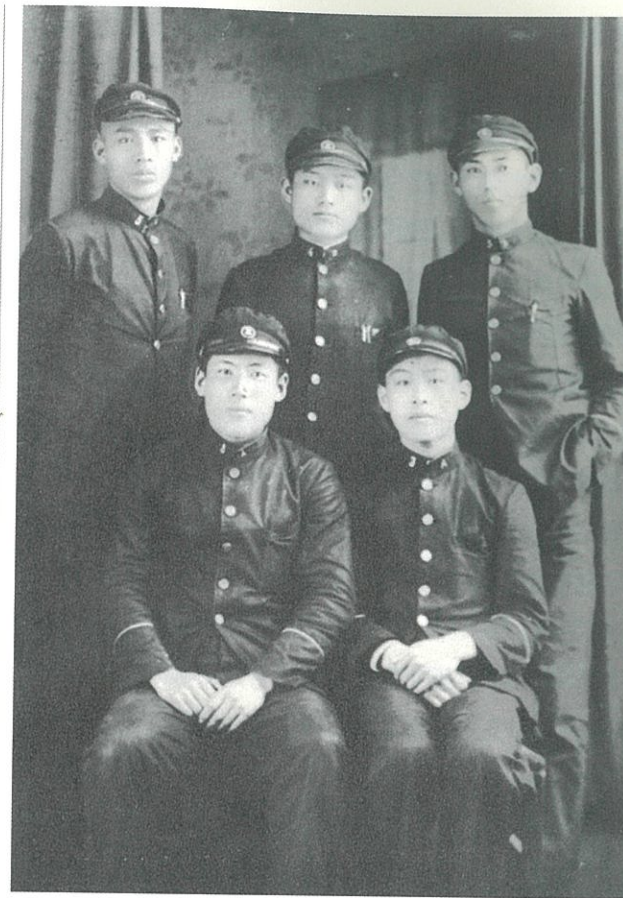
## 5) 아쉬운 하산

시간은 어느덧 오후 1시! 우리는 섭섭하게도 천왕봉을 이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천왕봉아! 잘 있거라! 길게 길게 잘 있거라. 천하만물 그치도록! 부디부디 잘 있거라!" 우리는 동북으로 연(連)한 산잔등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허리까지 빠지는 적설은 우리의 걸음을 용이하게 허락치 않는다. 바람에 불리는 눈은 우리를 더욱 희롱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용감한 우리 일행! 그들은 승리에 만족을 얻어 이 모든 장애물을 힘있게 물리치며 역진! 또 역진! 천왕봉에서 약 3킬로쯤 되는 지점에 이르니 역시 백설이 가득한 좁은 곳에 이르니 산맥은 좌우양편으로 갈라진다. 식은땀을 말리며 열기 충만한 얼굴로 서로 바라보면서 환희에 넘치는 웃음을 웃는다. 그러나 원망스런 해는 우리에게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길게 주지 않으므로 우리는 우편길을 잡아 계곡으로 내려오니 눈은 갈수록 더 깊게 빠진다. 따라서, 길이라 하는 것도 전연 분별할 수 없다. 이로부터 다만 연맥(連脈)의 잔등을 따르기로 하였다.

얼마 아니되어 우리는 '길'도 잊고 우리의 위치까지도 잊어 버렸다. 수목이 무성하여 서로 엉키고 하늘까지 뻗어버린 거목 속으로 들어갔다. 지도를 펼치니 그것도 무용(無用)이었고 자석도 쓸데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여 내려온 길을 다시 오를 수도 없어 대단히 위험하고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실색(失色)하여 사방을 둘러보며 눈이 커진다. 주위에는 오직 거수가 뻗뻗하고 넝쿨들이 사면팔방으로 엉키었으며, 백설이 허리를 지날 뿐이다. 하늘도 볼 수 없고 흙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한가지 "인가를 찾지 못하면 설중에서라도 자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심으로 벗어나자는 것뿐이다.

두 다리를 뻗고 '스키' 없는 '스키!'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엉킨 넝쿨, 쓰러진 나무, 눈에 매몰된 암석 등등으로 휘방을 당하여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다가는 룝색을 댈 채로 몇 번이나 굴러 내린다. 오후 4시경! 반갑게도 우리는 하늘을 볼 수



1937년 3월 최초로 지리산을 종주한 양정산악부원들.  
뒷줄 맨 오른쪽이 리더인 최기덕이다.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근처에는 터만이 남은 막의 자취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임중(林中)에 싸여 있었다.

땀을 말리며 눈을 먹는다. 우리는 여전히 스키를 지친다. 천행이다! 우리는 그 급한 경사를 미끄러져 내려오느라고 빠른 속도로 뛰어내리다가 "돌연 7.8길"이나 되는 빙벽의 절벽을 눈앞에 맞게 된 것이다. 하마터면 우리는 이 절벽에 떨어졌을지도 모르나 다행히 이것을 피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 살은 것이다. 그 순간 우리 몸에서는 진땀이 비오듯하고 소름이 끼친다!

정신없이 머리를 들고 일어서니 물흐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온다. 어디서 들리는지를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물소리 나는 곳을 찾으려고 각기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물소리는 다른 먼 곳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발 밑에서 나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우리는 개천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두렵기 짝이 없었다. 앞에 있는 절벽은 폭포가 얼어 붙은 것이다. 아직도 사방은 수림이 울밀하다. 우리는 다만 하산에만 전력을 다하였다. 오후 5시 반! 우리는 설중이나마 희미한 길을 찾았다. 근심과 불안에 잠기었던 우리의 얼굴에는 새로운 활기가 떠돈다. “계속되는 침묵도 환담과 잡담으로 건넌다.”

우리는 길만 쫓아 내려간다. 얼마 지나서 한 둘의 촌가가 수목 사이로 내려다 보인다. 우리는 잊었던 길이 어디인가! 또 이곳이 어디인가를 알고자 동편의 소구(小丘)로 올라갔다. 사방으로 인가가 점점 보이고, 또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은 천왕봉으로부터 화림암으로 내려 뺀 연맥(連脈)의 사측(四側) 계곡으로 내려선 데에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 고생하던 골짜기가 이상하게도 자세히 올려다 보인다. 해는 낙조에 임박하였다. 잠시 숨을 돌린 뒤 곧 인가를 찾아 동편으로 내려가니 오후 7시 20분! 겨우 삼간 초옥의 새 집터를 찾아 들었다. 이곳은 경남으로 유평리(油坪里)라는 동리(洞里)였다. 이로서 우리의 지리산 정복은 끝까지 잘 성취되고 말았다. 유평리에서 환희에 넘치는 일야를 새우고 23일 도보로 산청읍(약 14km)으로 나오니 흐렸던 하늘에서는 무지한 빗방울이 탄환과 같이 떨어진다. 오후 1시 30분 자동차로 진주에 이르니 비는 차츰 더 쏟아질 뿐이다.

잠시, 진주이야기를 듣고 오후 4시 반 차로 진주를 떠나 부산에 하차하니 오후 9시 25분이었다. 비는 마찬가지로 내린다. 신문사의 친절하 안내로 춘여여관에서 일박하고 24일 아침 일찍 운무에 싸인 영도와 오륙도를 바라보며 해운대 온천으로 향하였다.

여러 날 동안 피로하였던 몸을 온천수로 맑게 닦아 버리고 험준하던 산악에 몹시 시달린 눈을 창랑(蒼浪)과 백사(白沙), 청송(靑松)으로 위안한 뒤 즉일 오후 9시 5분 부산 역발 봉천행 열차로 25일 오전 8시에 경성역에 무사히 귀착하였다.

## 5. 최기덕과 양정산악부

\* 최기덕(崔基惠), 그는 양정고보 제22회 출신으로 양정산악부 창건 자요, 양정산악회의 창시자이다. 그는 3·1운동이 일어난 기미(己未)생이다. 창조적이고 무실역행하는 생활신조와 진정한 애국애족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일깨워 준 그 이기에 나는 그를 친한 친구사이라기보다 우러러보는 외우(畏友)라 함이 마땅하다. 아둔하고 미련한 나로서 감히 생각치도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를 욕되게 할지도 모를 것이나 그를 기리며 내 살아 있는 동안 그와의 사이에 있던 일과 김교신 선생과 김주환 선생과의 만남의 사연을 더듬어 그의 인성, 사회성, 그리고 생활철학 등 몇몇 가락을 적어 길이 남겨보고자 한다(필자 주).



양정산악부와 양정산악회의 창시자 최기덕회장(1975년 사진).

최기덕은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내기리(신대부락)에서 태어났다. 그는 8세에 오성면 안중공립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집에서 약 6km나 되는 먼 길을 어린 나이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년 동안을 도보로 통학해야 했다. 그는 이때부터 엄격한 유교가문에서 예절과, 근면과 극기심을 길러 왔다. 졸업 후 1933년 서울의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 1학년 갑조에 편성되어 김교신을 담임선생님으로 모시게 되었다. 필자 한상욱과도 한 교실에서 5년 동안(당시 양정고보에서는 학년담임을 1년제로 하지 않고 입학에서 졸업까지 인격감화교육을 목표로 5년 계속 담임제로 함) 김교신 담임 선생님의 훈도를 받으며, 동고동락의 인연을 맺게 됐다. 우리는 학년초(1933년 4월)부터 휴식시간이나 방과 후면 몇몇 학우들끼리 모여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 그리고 주위 환경 등 서로서로의 사정을 주고 받기도 하여 우정을 넓혀 갔다.

일요일이면 산행이나 하이킹을 즐기는 학우들도 있었다. 그 중에 최기덕은 서울 근교의 명승 고적, 사적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다. 산을 좋아하는 학우들이 최기덕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가을이 다가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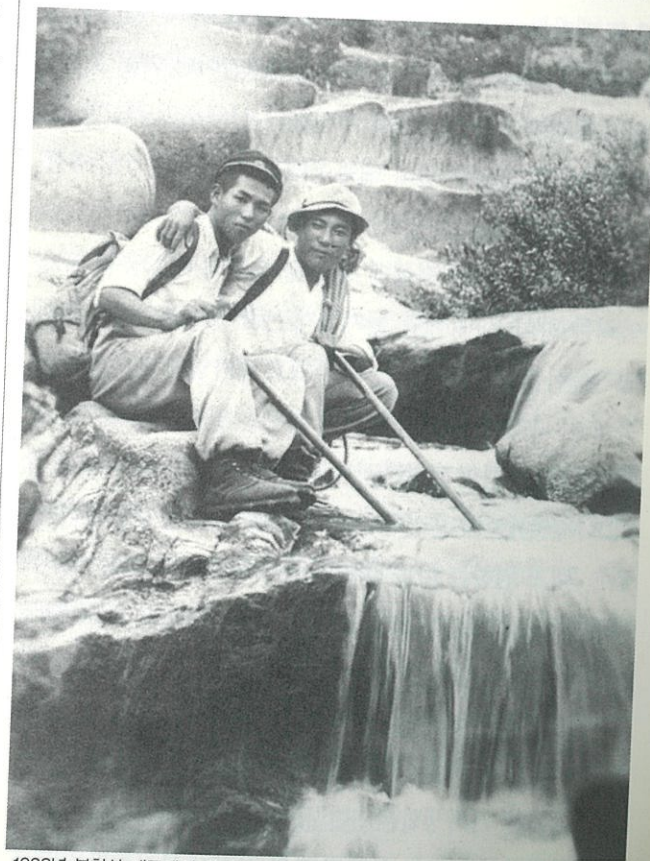
산을 찾는 학우들의 수도 늘어났다. 자연발생적이라 할까 유유상종이라 할까 뜻을 같이하는 동아리끼리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름 지어 하이킹이라고 불렀다. 'Hiking'이란 뺏지도 만들어 등산모에 달고 다녔다. 우리는 리더로 최기덕을 추대했다. 이때에 하이킹부원은 주로 동급생인 최기덕, 안필수, 김상국, 김성근, 한상욱이 주축이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일년 후배인 이상선도 열의가 넘쳤다. 최기덕 리더의 치밀한 계획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뼘 한뼘으로 뭉쳤다. 매 일요일마다 최기덕 리더를 중심으로 산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었다.

1934년 가을 김교신 선생께서 '무례사네'라는 모임(그 당시 8년 전에 김정섭이란 분에 의해 만들어짐)에 대하여 소개를 받았다. 우리는 이 모임에 참가하여 일요일마다 서울 근교의 산과 사적지, 고분들을 답사하면서 심신 단련에 힘썼다. 이때의 '무례사네'(이는 '물에 산에'를 고유명사로, 철자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인솔은 당분간 김교신 선생께서 수고하셨다. 이 모임에서 김교신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내용들을 답사와 관찰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김교신 선생님의 현장답사교육은 최기덕 리더로 하여금 리더십의 근간을 이루게 했을 뿐 아니라 이 나라, 이 강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간직하게 하였다.

1935년에 들어서 김교신 선생님은 너무 바빠서서 우리는 최기덕을 리더로 삼아 산악부 조직을 개편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산행과 암벽등반도 시작되었다. 학교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김교신 선생님은 의례 교실로 오셔서 학생들의 하루 생활을 돌아보시고 감동될 만한 사건이나 정보들을 전해 주셨다. 특히 새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일기를 매일 쓰게 하시고 1주일에 한 번씩 검열을 하셨다. 이 일은 김교신 선생님이 담임으로서 가장 애쓰신 것 중의 하나이다. 한 학급 50명을 하루에 10명씩 나누어서 일기 검열을 하셨다. 그 내용을 살피기보다는 일기 쓰는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였다. 만일 이 약속을 어기는 날이면 그 이튿날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고, 방과 후 해질 무렵까지 교무실 앞에서

벌을 서야만 했다. 이는 일기뿐 아니라 결석을 하게 되면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해야지 무단 결석을 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다. 숙제, 시간지킴기 등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격형성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학기에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에 두 차례의 시험이 있었다. 이 기간중에는 휴식시간에도 학생들은 노트나 메모지를 들고 나와 외우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김교신 담임선생님은 이를 허락치 않으셨다. 공부는 미리미리 해야지 시험 당일에 임갈굴정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김교신선생님의 담임 받은 한 학생도 휴식시간에 책이나 노트나 메모지를 가지고 나와서 외우는 일은 없었다. 물론 미리 미리 공부를 다 해서가 아니라,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방학이 가까워 오면 방학 동안에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셨다. 특히 방학은 학생들만이 가질 수



1938년 북한산 계곡에서 최기덕(좌측)과 김상국.



있는 가장 값진 기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방학을 자유대학이라 하셨다. 하고 싶은 것, 여행이나 독서, 운동, 채집, 기록 등등. 자유로이 자신의 심신을 만족시키고 가치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의 기회라 강조하셨다.

김교신 선생님께서는 동양사람은 서양사람에 비해 적극성이나, 진취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다. 공자님 말씀에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즉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동양 생활 철학에 근원을 이루어 온 말이다. 그러나 김교신 선생님은 여기의 '불'자와 '물'자를 빼고 '기소욕시어인'이라 고쳐 쓰셨다. 즉 내가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하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교신 선생께서는 22회 졸업앨범에 이 글을 친히 써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 주셨다. 김교신 선생께서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종례시간이면 의례 교실에 오셔서 감격어린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셨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면서 해가 기울어 교실 속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되는 일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만남은 최기덕에게 장차 양정 산악부와 양정 OB산악회를 반석 위에 세워 놓기까지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데 밑거름이 됐다. 그는 산을 좋아하고 대자연을 사랑하며 더욱이 이 나라 이 강산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하이킹부와 산악부를 조직하여 동호인을 규합하고 육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이는 '기소욕시어인', '내가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라는 유훈에 뿌리내려 싹틔우고 꽃피워 이제 양정산악회가 우리 한국 산악사를 장식함에 큰 몫을 이루게 함이 아니었던가?

그는 산행을 통해서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록에 남겼다. 그는 항시 메모지나 수첩을 휴대하였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기록생활은 5년 동안 일기쓰기에서 연루됨이 아니었던가. 또, 그는 산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우

고 만반의 준비를 다함도 '임갈굴정(臨渴掘井)'식의 시험공부를 배격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김교신 선생님의 가르치심 덕분이었다. 김선생님은 교과 학습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히 강조해 오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방학을 자유대학이라 하셨던 것이다. 지리담당인 그는 지리공부는 책상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광활하고 오묘하며 놀랍고도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감격에 벅찬 인간성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최기덕으로 하여금 산과 들 그리고 강과 계곡을 찾게 함도 이에 연루됨이 아니었던가.

어느날 김선생께서 '창조의 생활'이란 기사를 일간신문에 실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셨다. 내용인즉 당시 외국으로(미국이 아닌가 한다) 유학갔던 김주항이란 분이 미국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던 미국여성과 결혼하여 부인을 데리고 한국(당시는 일본 식민지)으로 돌아와서 '창조의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압제하에 절망의 늪 속에서 잠들어 있는 조선민족의 잠을 깨워 보수적인 생활에서 진취적인 생활로 탈바꿈되지 않고서는 천대와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부부가 솔선하여 천대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와 땀으로 진취적인 창조생활을 실천해야만 하겠다고 부인에게 제의했다. 부인도 일신상의 안일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편할 것이나, 남편의 숭고하고도 강렬한 결심에 감복하여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크게 감동한 것은 최기덕이었다. 그는 이번 산행계획을 바꾸기로 부원들에게 제의했다. 대신 김주항씨 맥을 방문견학 하자는 것이었다. 하루의 산행은 부원 모두들의 한결 같은 기다림이요, 즐거움이다. 더욱이 하루의 산행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다 해 놓은 최기덕 리더였다. 그러나 그는 신중한 어조로 그같이 제의했다. 그 이유로 그 분의 '창조생활'을 통한 치밀한 계획성과 굳건한 실천력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며 자력갱생하자는 생활 철학이 우리 모임의 근본 방향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했다. 여기서 자력갱생(自力更生)이란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듭난다는 뜻으로 우리의 처지로 볼 때, 노예근성에서 탈피하여 자주독립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뜻을 일제 시대에 감히 비출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시정목표를 자력갱생으로 정한 때가 있었다. 그 이유로는 일본 본토에서 생산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쌀을 위시한 수산자원, 지하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 부지런하고 더욱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탈바꿈하자는 식민정책 때문이었다.

산악부원들은 최기덕 리더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분위기로 보아 '자력갱생'의 뜻을 일제의 식민정책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자립, 자주로의 탈바꿈 쪽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산행이 아닌 방문 견학길에 올랐다. 김주항 선생댁은 당시 연희전문학교 뒤 야산에 터 잡고 있었다. 서대문 쪽 홍화문(경희궁터) 앞에 모여서 약 6~7km되는 '창조생활'의 주인공 김주항 선생댁으로 발길을 옮겼다. 얼마간 걸었다. 소나무와 잡목사이로 돌집(자연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산중에 단 한 채의 훌륭한 석조 건물이다. 저런 훌륭한 돌집이 어떻게 두 내외분이 손수 2년이란 기간에 지을 수 있었을까.

최기덕 리더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30대 젊은 분! 우리는 단번에 이집 주인임을 알아챘다. 최기덕 리더는 "김주항 선생님 이시지요?"하고 인사를 하고 방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인과의 인사를 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돌집을 지었을까? 두 내외 분은 전부터 주인 없는 움막집을 손질하여 우선 내외분의 거처로 삼았다.

남편은 조선사람이니까 그러하더라도 부인은 미국의 중류 가정에 태어나 최고학부까지 나온 문명사회에서 자란 부인이 자기네 돼지우리 만도 못한 움막집에서 2년여를 살며 낮에는 남편과 리어카를 끌며 길도 제대로 없는 계곡이나 산 기슭에서 자연석을 모아 나르고 밤이면 등잔불 밑에서 두 내외분이 머리를 맞대고 집 설계도 작성에 밤이 깊어감

을 잊었다 한다. 설계도가 작성되고 두 내외분은 기초를 파기 시작했다. 비가 와도 걱정없고 오래 걸려도 썩지 않는 시멘트와 돌과 모래, 그리고 별채를 이룰 자연석, 이것이 이 집 건축에 소요되는 골재의 전부였다.

이런 골재들은 리어카로 두 내외분이 운반하기를 수 개월, 이제 콘크리트 기초를 다졌다. 드디어, 완성된 기초 위에 자연석으로 별채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짝과 문틀을 고물상에서 사 왔다고 한다. 이렇게 지은 집 바로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에 우리들은 서 있었다. 특징은 안팎 벽이 미장공사나 도장공사도 하지 않은 점이였다. 별로 세간살이도 보이지 않았다. 밖에 장독대도 없다. 그러나 3평짜리 서재에는 책으로 벽채를 채웠다.

최기덕 리더가 물었다.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김주항 선생의 대답에 우리는 아연실색했다. 김주항 선생의 대답은 당신이 서 있는 거기가 바로 화장실이라 했다. 서 있는 곳은 송판 쪽 한 장의 뚜껑이 덮여 있었다. 이 뚜껑을 열면 여기가 바로 수세식 변기인 것이다. 이 집은 언덕 위 경사지에 지었다. 경사지 사면을 따라 몇십 미터의 거리를 파고 관을 묻었다고 한다. 용변을 보고 물을 부으면 깨끗이 씻겨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기하고 기발한 일들이 많으나 생략하겠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생활'이다. 남의 흉내를 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며, 연구하며, 공부하며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과 굳건한 실천력으로 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점심시간이 가까움을 깨달았다. 방문 견학을 끝마치며 필자는 경건한 마음에 사로 잡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스럽고 경건한 부부는 밀레가 그린 만종이다. 두 부부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수확물을 수레에 실어 놓고 황혼 속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에 두손 모아 경건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화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이지 실체는 아니다. 그런데 필자는 그날 실제로 밀레의 '만종'을 이 창조생활의 주인공인 두 부부에게서 발견했다.

최기덕리더는 떠나기 전에 김주항 선생에게 학생들에게 한



마디 말씀을 부탁드렸다. 김선생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문을 열었다. “현재를 충실히 해요, 그러나 내 발앞만을 내려다보지만 말고, 멀리를 바라보며 현실을 극복해야만 해요, 이상과 희망은 높고 먼 데 있으나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을 곳곳이 밟고 서야 해요, 그리고 전진해요.” 우리는 김주향 선생택을 떠나면서 묵묵히 최기덕 리더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최기덕 리더 그는 아마도 창조의 생활, 가난과 천대에서의 탈피, 탈바꿈, 민족개조, 앞으로의 우리 산악부의 근본방향 등등 오늘의 감격을 되새기고 있는 것같이 보였다. 우리는 오늘의 견학방문의 참뜻을 되뇌이며 점심 먹을 장소로 발길을 옮겼다. 우리는 1934년 가을부터 하이킹의 경지를 넘어서 본격적인 등반을 시작했다. 인수봉, 오봉, 만경봉, 만장봉 등 암벽등반에도 도전하면서 하이킹부에서 산악부로 호칭도 바꿨다. 암벽등반에는 장비, 기술, 안전의 기본훈련이 선행되어야 했다. 더욱이 최기덕 리더의 책임감은 철저를 기했다. 그는 암벽등반을 앞두고 치밀한 계획과 투철한 사전 답사와 철저한 장비에 완벽을 기함으로 산악부원들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 6. 1938년의 양정산악부 활동

\* 양정 교지에 이상선 부장이 게재.

### 1) 탐험 등반

전시 일본의 1938년도도 아직 포화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저물어 가고 있다. 이 비상시하에 우리 등산부에 있어서는 어떠한 전적을 남길 것인가? 여러 선생님의 열렬하신 지도와 졸업생 유지들의 성의있는 지도하에 부원일동의 훌륭한 활동은 이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위대한 업적을 남길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전적으로 1937년도의 지리산 탐험등반을 계기로 오대산, 설악산(春休), 천마산(今秋)이었는데 질적, 양적으로 각 학교 등산



38년도의 양정산악부 리더 이상선.

활동을 압도하여 조선등산계를 단연 리드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와 같은 정복으로서 끝났다는 것은 시국관계라고 하지만 실제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등산은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흥미를 주는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함에 따라 우리 산악부의 전도는 더욱더욱 융성할 것이다. 우리들은 등산이 혹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혹은 사교적인 견지로 보아 이만한 훌륭한 스포츠는 없다고 확언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등산을 통하여 대자연과 접촉하는 중에 속세의 피로를 깨끗이 잊어 버리고 송고한 대자연계의 정기를 만끽하는 것에 의하여 고결한 인생관을 수립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청년의 불가함(不可欠)한 호기와 담력을 기르며 단체생활과 집단적인 생활의 고귀함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1주일간의 오아시스, 일요일에 열정에 넘치는 친구들과 같이 하는 중턱에 훌쩍 솟아 있는 웅봉을 바라보며 끝없이 흘러내리는 물소리에 리듬을 맞추어 신비로운 자연계 속에 하루를 단락(團樂)하게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의미심장하고 명청(明淸)한 생활이 될까? 경제적인 견지로나 육체적인 견지로나 많은 말이 필요없다. 등산에 대한 옛날의 관습적인 이해하지 못할 관념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

산악부 진용(陳容)은 코치/안필수(安弼洙), 리더/이상선(李相瑄), 부원/전일(全一), 노정환(盧程煥), 윤봉무(尹鵬), 이종민(李鍾珉), 전학진(田鶴鎭), 이재영(李載榮), 이은엽(李殷燁), 황우엽(黃又燁), 이규현(李珪鉉), 정태혁(鄭泰赫), 임종대(林鍾大) 등이다. (매 등반회에 참가하는 자는 언제든지

10명 이상임)

1938년의 탐험코스 기록을 대략 간단히 기재한다.

### 가. 오대산

3월 19일 경성발~나주착(등반준비 1박)

3월 20일 여주발(자동차)~원주~문막~황성~대화~월정사(1박)

3월 21일 월정사~사고사~상원사(1泊)(본교 졸업생 이상순 선생 회견)

3월 22일 상원사~서태사~적멸보궁~비로봉(1563m)의 주봉~상왕봉~북대하류 계곡설중(1박)

3월 23일 계곡 설중~상원사~월정사~강릉(1박)

3월 24일 강릉~양양~낙산사~점교리(1박)

3월 25일 점교리~물갑리~관모봉~설악산~봉정암(1박)

3월 26일 봉정암~설악산~둔전리~석교리~낙산사(1박)

3월 27일 낙산사~삼일포~외금강

3월 28일 이른 아침 경성착

### 나. 박연폭포 및 대흥산성

9월 23일 경성발~개성~오정문~미륵암~삼거리~서제동~평촌~정명사현~서문동~하정자동~산도에 의하여 박연폭포 도착하여 캠핑 1박.

9월 24일 이른 아침 박연폭포발~관음사~대흥사~안원봉~내통동~화장동~오소동~대원동~개성도착(송도여관 1박)

9월 25일 오전 6시 개성발차로 경성 8시 20분 도착함(부원



38년도 산악부의 최고참이었던 안필수의 등반모습.

도보거리 49km 소요시간 15시간)

### 다. 서울 근교 탐험 코스

백운대 코스 : 효자동~북문~평창리~문수암(대남문)~성벽~위문~백운대(소요시간: 4시간 40분 도보거리 13km)

보현봉 코스 : 효자동~북문~평창리~문수암~보현봉~북악산~삼청동(소요시간 5시간 도보거리 14.7km)

비봉, 문수암 코스 : 효자동~북문~신영리 경유~승가사~비봉~문수암(소요시간 4시간 도보거리 10.2km)

백운대 코스 : 영천~녹번리~불광리~대서문~위문~백운대(소요시간 4시간 도보거리 11.8km)

진관사 비봉 코스 : 영천~녹번리~불광동~진관사~백운대(소요시간~4시간 도보거리~12km)

도봉산 코스 : 창동~우이동~우이령~우이암 서미근(西尾根)~자운봉(소요시간 4시간 30분 도보거리 12km)

우이암 코스 : 창동~방학동~원통암~우이암(소요시간 3시간 도보거리 9km)

천축사 코스 : 창동~노원교~천축사~자운봉(소요시간 2시간 도보거리 10km)

망월사 도봉산 능선 코스 : 청량리~망월사~망월사가(假역)~망월사~도봉미근(尾根) 경유~자운봉(소요시간 3시간 도보거리 5km)

회룡사 코스 : 의정부~호동 경유~회룡사~도봉산 능선